관광관련 정부정책

제109호 (2008년 6월 첫째 주) 관광산업연구실·관광지식정보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국제공항으로 모두 이전 (국토해양부) ····· 3
도시화의 대안, 21C 농촌에서 찾는다 (농촌진흥청) ····· 3
30개 여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 4
해양레저장비산업, 신수종산업으로 육성방안 논의 (지식경제부) ····· 5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도 리모델링 쉽게 개선 (법무부) ····· 10
한국 국가경쟁력 31위…두 단계 하락 (기획재정부) ····· 10
“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 11
30개국 95명의 문화동반자를 통한 한류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 13
“여름 휴가철 국유휴양림 예약 받습니다” (산림청) ····· 14
국립중앙극장 ‘기업형→행정형’ 탈바꿈 (문화체육관광부) ····· 15
숙박 여가시설 이용객의 소방안전 확보 (소방방재청) ····· 15
숭례문 2012년까지 본모습 되찾는다 (문화재청) ····· 16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달 말 재출범 (청와대) ····· 17
이명박 대통령 “지방이 잘돼야 대한민국도 잘 되는 것” (청와대) ····· 18
선진국 관광개발 프로젝트 경험 배운다 (문화체육관광부) ····· 19
흥겨운 우리 가락에 한번 빠져볼까 (문화체육관광부) ····· 19
자연친화적「국립공원 생태관광」도입 (환경부) ····· 20
국립수목원 토요일에도 개방한다 (산림청) ····· 20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발족 (문화체육관광부) ····· 21
‘탄광 섬’에서 ‘관광 섬’으로의 변신은 무죄 (국정브리핑) ····· 22
[서울특별시] 서울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적극 나선다 ····· 24
[서울특별시] 산책하면서 바람을 가르는 요트대회 보세요 ····· 24
[부산광역시] 외국인 의료관광산업 허브화 ····· 25
[부산광역시] 용두산공원·자갈치시장, 관광특구 지정 추진 ····· 26
[부산광역시] 제5회 차이나타운 축제 개최 ····· 27
[부산광역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산관광 전략회의 개최 ····· 27

[부산광역시]『불꽃축제, 한류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제4회 부산불꽃축제 기본계획 확정 28
[부산광역시] 부산시-관계기관, 김해국제공항 운영활성화 방안 협의 ····· 29
[대구광역시]『낙동강 뱃길탐사』추진 ····· 29
[인천광역시] 2008년 관광학부 학생 팸투어 실시 ····· 30
[울산광역시] 동남권 신국제 공항 조기 건설 건의 ····· 30
[광주광역시] 외국어 전문 관광가이드 양성교육 실시 ····· 31
[강원도] "강원 관광의 얼굴" 도로변 휴게소가 새로워진다 ····· 31
[강원도] 관광시설 인허가 개선 도·시군이 머리를 맞댔다 ····· 33
[강원도]「동해·속초-러시아-일본」2개 국제 신항로 개설 가속화 총력 ····· 33
[경기도] 제9회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한다 ····· 34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위해 서해안 군 철조망 철거 ····· 35
[경기도]『제1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성대하게 열려 ····· 36
[경기도] 동북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한·중 해저터널 국제 세미나 개최 ····· 36
[충청남도] 농업인·도시소비자 대상 농촌체험관광 지원 ····· 38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 39
[전라남도] 곡성~지리산온천 잇는 고달~산동간 도로 개통, 관광객 증가 기대 ····· 40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용,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올인 ····· 40
[전라남도] 여수박람회·F1 성공개최로 관광적자 돌파구 마련 ····· 41
[전라북도]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사업 중앙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으로 승인 42
[전라북도] 2009녹색농촌체험마을 7개 마을 선정, 농식품부 추천 ····· 43
[제주특별자치도] 5월중 관광진흥 전략보고회 개최 ····· 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의 가치지향적 관광불편 일소 대책반이 운영된다 ····· 4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을 걷는다-한일 친선워킹 ····· 45
[법령해석사례]「온천법」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45
[법령해석사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 48
[해외동향] 美영화산업(상) - 불황을 모르는 할리우드 (KOTRA) ····· 50
[해외동향] 美 영화산업(하) - 한국영화 진출현황 (KOTRA) ····· 52
[해외동향] 오스트리아, 유로 2008 개최와 기대되는 경제효과 (KOTRA) ····· 56
[해외동향] 컨벤션센터를 통한 국제회의 도시 인프라 극대화(ACV) (KLAFIR) ····· 58
[언론동향] (심층진단) ① 여행산업 기로에 서다 ····· 59
[언론동향] (심층진단) ②'글로벌 여행사'가 출현하려면 ····· 62
[언론동향] [신동아] 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 ····· 64
[소식행사]『2008 한국 의료관광 컨퍼런스』개최 ····· 70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국제공항으로 모두 이전

국토해양부는 오는 5.28일(水) 19시부로 "고속국도 제12호선"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전 구간(41.35㎞)이 개통됨에 따라 기존 광주공항에서 운항되던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모두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 5.28일 19시부 나주-광주 간 10.95㎞ 개통예정(무안-나주 30.4㎞ '07.11월 기개통)
- 「제2·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00.12, '06.11)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개항('07.11.8일)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결정

이전대상이 되는 국제선은 대한항공 광주/상해(週 2회) 및 아시아나항공 광주/북경(週 2회) 정기여객노선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지난 5.9(金)일자로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5.29(木)일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양 국적항공사의 상해 및 북경 노선을 포함하여 전체 국제선 週 19회, 국내선 週 7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광주공항 국내선에 대해서는 항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담당: 항공정책과장 황성연·국제항공과장 김상도 | 등록일: 2008.05.14)

도시화의 대안, 21C 농촌에서 찾는다

농촌진흥청,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 개방

농촌진흥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농업과학기술원 곤충생태원 내에 240㎡ 규모의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을 개방하고, 국내 농촌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휴양 및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한편, 어린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전시관 구성은 농촌어메니티 소개공간, 새로운 아이디어공간, 정보공간, 영상체험공간, 작품전시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메니티 소개공간에서는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어메니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어메니티 정보공간에서는 농촌어메니티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영상체험공간에서는 농촌어메니티 홍보동영상 및 마을홍보 동영상을 상영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공간과 작품전시공간을 통해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작품을 비롯하여, 예쁜 마을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한다.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에서는 농촌진흥청 내 곤충생태원을 방문하는 유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어메니티 요소를 몸으로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 스크린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별로 나비 잡기, 반딧불이 잡기, 잠자리 잡기, 눈덩이 굴리기 등의 이색적인 디지털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나무동물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체험교재인 '농촌어메니티 체험워크북'을 개발하여 어메니티 전시관 및 곤충생태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직접 적고 그릴 수 있도록 하여 환경교육의 효

과를 높이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러스트로 구성되었으며, 어메니티 퀴즈 풀어보기, 계절별 어메니티 주제 표현하기, 어메니티 대상 그려보기 등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촌어메니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rural.rda.go.kr) 내에 '농촌어메니티 사이버 전시관' 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에 걸쳐 오전 10:00시부터 오후 17:00시 사이에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 희망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화(031-290-8542)로 예약해야 한다.

농촌어메니티란 농촌에 존재하는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 쾌적함을 제공하는 지역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자원을 말한다.

농업과학기술원은 2002년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부와 지자체의 농촌개발계획 및 지역관광 브랜드 창출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 유아·초등생의 농촌 체험학습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210지역 11,589마을을 대상으로 161,000여건의 농촌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하였으며, 2010년까지 전국 32,000마을의 자원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축적된 농촌어메니티 발굴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한편, 유익한 관광자원으로 보급하고자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개방: 5월 5일~10월 31일(월, 수, 금, 10:00~17:00)
- 체험프로그램 문의: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031-299-0512/0514)
- 방문예약: 농업과학기술원 유용곤충과(031-290-8542)

(농촌진흥청, 문의: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031-299-0514) | 등록일: 2008.05.14)

30개 여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로 지정

광고·홍보비 2억 4천만 원 지원, 관광기금 각 1억원 융자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하고, 건전 여행문화 정착에 기여한 30개 여행사가 「2008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로 선정되었다.

우수여행사는 관광업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한 해 동안 외화획득 실적 유치 우수여행사 20개사와 유치시장의 다변화 차원에서 3개 시장별(중국, 동남아, 미·구주) 유치실적 우수여행사 7개사, 중소여행사의 유치의욕 장려를 위해 유치성장률 우수여행사 3개사 등 총 30개사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여행사는 업체별 1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1년간 각종 여행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업체 로고 사용 및 해외시장 유치홍보단 구성 시 우선

선정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선정된 우수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에 필요한 광고·홍보비 등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우수여행사 선정·지원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인바운드 여행사의 사기 진작 및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광고·홍보비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08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지정증서 수여식은 5.14(수) 16:30 문화체육관광부 5층 1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제관광과 신용식(02-3704-9778) | 등록일: 2008.05.14)

해양레저장비산업, 신수종산업[1]으로 육성방안 논의

'해양레저장비포럼 2008' 개최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상대적 취약 분야인 레저선박 등 해양레저장비[2]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양레저장비포럼'이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원장 김동철) 주관으로 5월 14일(수) 오후 2시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과 경상남도, 경기도 등 지자체의 해양레저 담당 공무원, 국내 조선소 및 부품공급기업 관계자, 해양레저동호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포럼에서 지식경제부 김동수 주력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취약한 국내수요기반과 서구중심 해양레저문화 때문에 소홀히 했던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는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근간인 조선산업과 엔진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등 연관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년 400억$가 넘는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방안에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관련 제도 정비방안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방안을 체계화하여 향후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산업육성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방안 요지>

1. 추진배경

□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내수기반도 본격 형성

○ 소득과 비례하여 성장하는 유망 신수종 분야로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척(470억$ 상당)의 신규 수요 발생

---

1) 신수종(新樹種)산업: 향후 5~10년 뒤를 내다보고 발굴·육성하는 신규 산업을 말함(관광지식DB 담당자).

2) 해양레저장비: 모터보트나 요트와 같은 레저선박을 비롯해서 수상 오토바이 등 해상에서 즐기는 모든 레저장비를 포괄하는 용어

○ 미국, 노르웨이, 호주 등 서구 高소득 국가에 시장이 편중되나 부유층 확대 등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도 시장이 확대추세

○ 국내에서도 소득·여가 증가, 육상레저공간 포화, 국제보트쇼 개최 등에 따른 인식제고로 수요가 본격적으로 형성

□ 전후방산업 연관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 엔진·추진장치 등 기자재산업과 금융·보험산업, 서비스, 물류 등 전후방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선형디자인 등 건조기술 외에도 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감성공학, 인테리어 등 다양한 기술이 결집되어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산업

□ 대형선박·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세계적 기술력을 접목 가능

○ 대형조선소의 流體성능해석 및 선형설계 기술과 항해·통신장치 등은 레저선박에도 적용가능하며 인테리어기술 등도 공동연구 가능 분야

○ 세계적 성능을 갖춘 국내 자동차업계 엔진기술도 방수·부식방지 강화, 냉각방식 변경 등을 통해 레저선박에도 적용가능

2.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방안(안)

□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해양레저장비 산업화 촉진

○ 마리나 확대, 규제간소화 등을 통한 국내 해양레저수요 활성화

- 운행시간 제한 완화(해진 뒤 허가), 입출항 신고절차 간소화(원스톱 서비스) 등

○ 세제감면, 금융상품 개발 등 레저선박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레저선박 등록세 부담완화, 레저선박 렌트제도 도입 등 금융상품 개발

□ 기술개발 역량 강화, 인력·기자재 육성 등 국내 공급기반 구축

○ '기술개발 청사진'을 통한 전략품목 제시 및 유망업체 발굴·육성

○ 대형조선업계 및 자동차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지역대학 및 국제교류 등을 통한 설계·생산 인력 양성사업

□ 해양레저장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학·관·연 역량 집중

○ 관련 산업주체 간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 집약화

○ 전후방산업 연계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국제대회 유치 및 해양레저전문도시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화 촉진

○ 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홍보

○ 개발-생산-마리나-관광을 연계한 해양레저전문도시 (Yacht City) 육성

〈해양레저장비 분류〉

□ 해양레저장비는 해상에서 즐기는 모든 레저장비를 포괄하는 용어

○ 동력 해양레저장비: 슈퍼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Inflatable boat

○ 무동력 해양레저장비: 크루즈요트, 딩기요트, 수상스키



슈퍼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Inflatable boat



크루즈요트



딩기요트

〈해양레저장비 국내외 수요 및 공급 현황〉

1. 세계시장 현황

□ 세계 해양레저장비 보유척수는 2006년 기준 약 2,300만 척 상회, 매년 100만 척의 신규 시장 발생하여 470억불 규모 (2006년 기준)

- 자료: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6

○ 해양레저장비 보유국은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핀란드 등으로 이들 국가가 세계시장의 약 87% 점유

- 미국: 전 세계 해양레저장비의 72%인 약 16.5백만 척이 집중되어 있는 세계시장 1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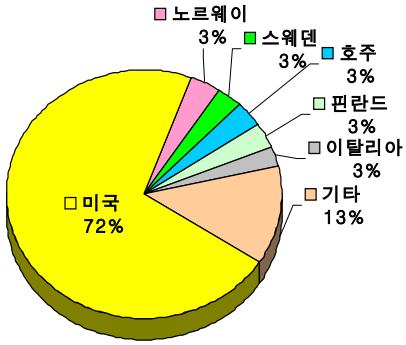
○ 해양레저장비 보유비율('06년 기준)은 노르웨이가 6명당 1척으로 가장 높고 핀란드(7명/척), 스웨덴(12명/척) 순임

- 일본: 450명당 1척, 우리나라 보유비율은 5,500명당 1척

<세계시장 규모추이>



<세계시장 보유율>



자료 :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6

□ **해양레저장비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등이 세계 수출시장의 90% 점유 (수상오토바이는 일본이 주도)**

〈미국〉

○ '06년 기준 생산 80만 척 (보트류), 내수 130억불, 수출 5.6억불, 수입 약 12억불로 세계 1위

○ 해양레저장비 생산업체는 약 1,400개사, 엔진제작 및 부품생산업체는 약 1,550개사, 고용인력 약 93만 명

〈유럽연합〉

○ 고부가가치 분야인 슈퍼요트는 Fincantieri, Aker Shipyards, Meyer Werft 등 유럽의 조선소가 주도

○ '06년 보트생산업체 수는 영국 500개사, 네덜란드 450개사, 고용인력은 이탈리아 9.2만 명, 프랑스 4.5만 명 순

〈일본〉

○ 생산업체는 약 88개사, 고용인력은 약 10,900명 수준

- 대표적인 수출제품은 수상오토바이 (가와사키중공업) 및 보트용 아웃보드 엔진 (야마하, 혼다, 도하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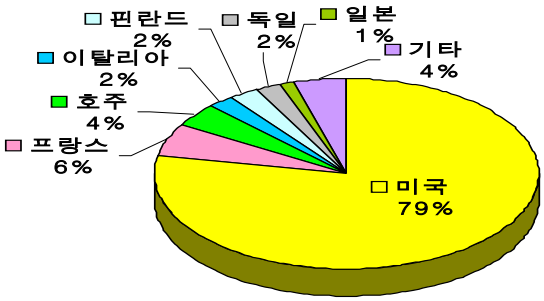
〈호주〉

○ '06년 기준 보트 생산규모가 약 38천척으로 세계 3위 보트 생산국

○ 어선건조에서 레저보트를 건조하는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로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 성공

- 생산 레저보트의 약 90%는 해외시장으로 수출, 수익 창출

<세계 해양레저장비 생산국 점유율>



자료 :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6

2. 국내시장 현황

□ 소득·여가 증대에 따라 스포츠형 해양레저 활동 증가

○ 국내 해양레저 면허취득자 수가 '00년 6,966명에서 '07년 65,758명으로 9배 증가

○ 국내 해양레저장비 보유규모 1999년 3,700척에서 2006년 약 8,000척으로 증가

- 요트의 보유규모는 윈드서핑 급 2,000척과 기타요트 약 964척

○ 선진국의 레저선박 보유척수 증가 추이 고려, 2012년 국내 레저선박 보유규모는 약 25,700척으로 7,000억원 시장형성 전망

□ 해양레저장비 사업장 수요 증가

○ 모터보트: 754개 소규모 해양레저사업장에서 대여 형식으로 운행, 통영 마리나, 수영만 마리나 등의 확충으로 수요 증가

○ 요트: 동호인 모임, 대학 동아리 위주로 증가 추세

○ 해양레저 서비스업체 약 430개 상존

요트, 모터보트 서비스업체				해양레저 용품판매	낚시, 스쿠버	계
보트판매	엔진판매	보트수리	중고매매			
10개	25개	10개	5개	30여개	350여개	약 430개

○ 연안인접 지자체 중심 41개소 마리나, 보트 계류장 건설 중

- 수도권 지역의 중형이상 요트 소유자는 계류장 및 정박장이 부적합하여 부산 마리나 시설을 주로 이용

- 부산, 통영, 진해를 제외한 요트장은 소형 요트용에 한정

□ **국내 레저보트 생산액은 1991년 14억원에서 2004년 117억원으로 증가세이나 대부분 인플랫터블 보트 OEM 생산**

○ 일반 모터보트, 요트 등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

- 인플랫터블 보트 외에는 수출 미미, 내수의 대부분은 수입 의존
- 레저보트에 필요한 160마력 이하 소형고속엔진 국내수요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

(지식경제부, 담당: 수송시스템산업과 김창규 과장 · 경경택 사무관(2110-5634) | 등록일: 2008.05.1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도 리모델링 쉽게 개선

법무부 법제도선진화 TF(팀장 이건태 법무심의관)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콘도 리모델링을 쉽게 바꾸는데 착수했다. 건물 개보수를 위한 동의를 위해 소유주 및 의결권 지분을 기존의 4분의 3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서면결의는 5분의 4에서 과반수 합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5월 13일 입법예고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콘도의 경우 의결을 위한 모임이 힘들고 서면합의도 쉽지 않다. 시설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 개장한 수도권 소재 모콘도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법무부 | 등록일: 2008.05.14)

한국 국가경쟁력 31위… 두 단계 하락

정부 "보다 적극적 규제완화 · 감세 · 자원외교 · 공기업 민영화 등 추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한 31위를 기록했다.

규제의 강도,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과 제도 등 정부부문의 효율성이 31위에서 37위로 하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감세, 자원외교, 공기업 민영화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3]에서 우리나라의

---

3)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지식DB > 관광지식정보 > 주제별 자료분류 > 관광산업 > 경쟁력활성화 > (또는 관광환경 > 국내환경 >) (또는 기관별 자료분류 > 정부의 관광정책 > 중앙정부 > 기획재정부 >)를 방문하면 "*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기획재정부, 2008.5.14)*" 전체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음. (아래: (관광지식DB 내) 관련 해외자료)

- Country Brand Index 2007 (Future Brand)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IMD, 2008)
- The Anholt Nation Brands Index 2007 (Global Market Insite)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2007.10.31)
-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7 (WEF)
-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8 (WEF, 2008.3.4)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55개 국가 중 29위를, 아시아·태평양 국가(13개국) 중에는 11위,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29개국) 중에선 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으며, 대만과 일본은 각각 5계단(18→13위), 2계단(24→22위) 상승했고, 중국은 2계단(15→17위)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대상 4개 부문별로는 경제성과 부문(49→47위) 및 기업효율성 부문(38→36위)은 개선됐지만, 정부효율성 부문, 인프라구축 부문(19→21위)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론 장기실업률(1위), 환율안정성(2위),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3위), 상품수출액(11위), 연간 근로시간(3위),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2위) 등은 강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비용 지수(55위), 외국인 직접투자(54위), 규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53위), 노사관계 생산성(55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50위) 등은 약점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하락한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법인세 등의 감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R&D 시설의 해외이전 등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추진,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8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로 2007년도 실적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감세 등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이 결실을 맺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문의: 경쟁력전략과(02-2150-2872) | 등록일: 2008.05.15)

"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400여명 참석, 문화도시 폭발적인 관심 집중

유인촌 장관 "문화콘텐츠의 생산기지, 창조도시의 조성 필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열린 <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하며 문화도시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람은 다 매력이 있다. 그만큼 서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시도 그 나름대로의 얼굴이다"며 "그 나라마다 도시마다 서로 다른 얼굴로 매력이 되살아나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한 "21세기 도시 재생의 화두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라며 인간을 위한 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시가 진보하고 있다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지는 20년 계획의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축가, 학자, 도시 행정 책임자들 등 도시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을 당부하였다.

이날 <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에는 약 4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문화도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까트리나 스테뉴(Katerina Stenou) 유네스코 문화정책·문화간 대화국장, 이토 도요 건축가, 우규승 건축가, 로베르토 그란디 이태리 볼로냐대 부학장과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의 문화도시 사례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까트리나 스테뉴(Katerina Stenou) 유네스코 문화정책·문화 간 대화국장은 기조발제에서 "오늘날 세계화는 획일적인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각 도시는 과도한 도심 확장과 균일화 과정을 겪고 있다"며 도시(city), 시민(citizenship), 문명(civilization) 용어의 라틴어 어원과 허브(hub)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획일적인 도시가 유토피아가 아니지만 획일화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놓으며 유네스코(UNESCO)의 목표가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가 가능한 평화로운 낙원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그 전제로 도시의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문명간 대화가 가능한 유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시 환경의 독특한 문화적 융합을 활용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까트리나 국장은 그 과제가 해결된다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건축가가 본 대도시의 문화적 재생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1섹션 발제자로 나선 이토 도요는 '현대건축의 문화적 의미'를 주제로, 건축이나 도시가 예로부터 인간 생활의 물질적·정신적 양면에서 풍요롭게 해왔던 사실을 전제하며 20세기 기술의 약진이 도시에 인구가 급격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이토 도요 건축가가 참여했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와 '센다이미디어테크(2001)', 'VivoCity(2006)', '마쓰모토시민예술관(2004)', '타이중시 오페라하우스(2005)'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연환경과 건축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21세기형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 문화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토로하였다.

역시 제1섹션의 발제자인 우규승 건축가는 '밖으로 향한 안뜰'이란 주제로 2005년 6월 당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국제 건축설계공모전 작업에 착수했던 배경과 프로젝트 중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상공원·지중건물 건축양식을 택한 이유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지향적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발제 이후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이창수 경원대 교수, 김홍규 연세대 교수,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호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정책관, 로베르토 그란디 볼로냐대 부학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해외 문화도시 조성사례"를 주제로 한 제2섹션의 발제자로 나서는 로베르토 그란디 교수는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의 유럽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거론하였다. 과거 고급문화로 정의되었던 예술이 시민들의 참여로 그 정의가 변화하는 과정과 1985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발족되기까지의 역사적인 상황을 거론한다. 그로인해 지난 23년간 37개 도시의 유럽문화도시가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의 문화정책, 마케팅, 행사의 역할, 인프라, 프로그램, 목표와 목적, 향후 계획에 대한 발제를 통해 문화도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긍정적인 요인과 주요 요소를 들어 문화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창조도시'의 저자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는 '네트워킹을 통한 창조도시 개발'을 설명하며 "21세기 글로벌사회는 민족국가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큰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며 창의적 예술문화를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경제 기반을 육성하는 창조도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화와 창조가 왜 도시정책에 반영되는가에 대해 P.게대스, L.멈포드, J.제이콥스, C.랜드리, F.비앤치니, R.플로리다 등 유명한 창조도시 학자와 도시 연구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창조도시의 정의와 6가지 필수 요건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특히 가나자

와, 교토, 오사카, 요코하마 등 일본의 창조도시를 향한 도전 사례를 제시하며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피력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는 빈센트 펑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 전 차관보는 서구룡문화지구 문화 허브 개발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배경, 협의체 및 자문단의 역할,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논조를 풀어나갔다. 핵심문화예술시설을 개발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활기찬 항구지역, 주변의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신중하고 투명한 재원조달 방식,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투자, 여론 수렴 과정과 그 결과, 문화 소프트웨어 강화 등 서구룡문화지구로의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임상호 교수의 사회로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 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종을 전주시 예술도시국장, 이토 도요 건축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렇게 제1, 2 섹션이 끝나면 문화도시 간 연대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이토 도요 건축가, 빈센트 펑 전 차관보, 로베르토 그란디 부학장,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인간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국제 컨퍼런스 다음 날인 17일에는 발제 및 토론자들이 광주·전남을 방문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 및 건립 부지 견학 후 증심사, 창평한옥마을 등에서 문화예술 체험을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교류협력과 이언용(02-3704-3454) | 등록일: 2008.05.16)

30개국 95명의 문화동반자를 통한 한류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8년 문화동반자사업 참가를 위해 입국을 완료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유망한 95명의 문화전문가들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4박 5일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금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1개 산하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초청연수사업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국제문화교류 사업인『문화동반자사업(CPI :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의 2008년도 공식 일정은 '08.5.19.부터 시행될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다.

동 사업은 일방적 한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하여 긍정적 한류를 형성하기 위해 2005년에 출범하였으며, '05~06년 2년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07년부터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초청범위를 확대하였다. '05년 57명, '06년 144명, '07년에는 130명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 유망인사가 참여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호 호혜적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귀국한 동반자들이 자국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등 한류 확산에 첨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가간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동반자의 참여로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된 바 있고, 특히 몽골 국립방송 'TV9'에 13회 걸쳐 방영된 '몽골보다 가까워진 한국(Mongol near to Korea)'은 2006년도 10대 인기 프로그램(시청률 상위 10위권 기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필리핀 국립 도서관에서는 귀국한 필리핀 동반자가『도서관안의 한국 보석: 한국 수집품 전시

회』 전을 열기도 하였다. 미얀마, 베트남, 몽골에서는 동반자들이 귀국 후 본국의 문화부 국장급 공무원에 임명되어 자국의 문화정책 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베를린 국제영화제 및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라크 감독 Mohammed Jano Mohammed, 콜롬비아 미래지도자 100인으로 선정된 Andres Felipe Solano Mendoza 등 각 분야의 젊고 유망한 문화인 95명이 우리나라에서 6개월 간 체류하면서, 국립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1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공동창작·연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자국문화에 대한 발표와 전통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문화동반자들은 200시간의 한국어 교육기회를 갖게 되어 귀국 후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우리 한글의 전파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08 문화동반자사업』 오리엔테이션은 5월 19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문화동반자사업 참가자들은 한국의 문화, 역사, 관광에 관한 강의와 그룹토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각기 다른 문화권의 참가자들 간에 문화를 이해하고, 친밀해 지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동안의 일회성·단기성 사업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바로 이해하거나 「동반자 관계구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동 사업을 추진하여, 한류가 세계에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함께 살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문화정책과 김동욱(02-3704-9422) | 등록일: 2008.05.16)

"여름 휴가철 국유휴양림 예약 받습니다"

내달 4~10일 접수…추첨결과 10일 오후 5시 발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7, 8월 성수기를 맞이하여 자연휴양림 이용 예약을 추첨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야외휴양수요를 산림으로 흡수하고 국민의 보건증진과 정서함양 그리고 자연학습교육을 위하여 전국에 34개소의 국유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연휴양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난 '02년 6월부터 예약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예약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여름 휴가철에는 기존의 선착순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03년부터 여름철 성수기 예약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성수기 추첨예약 평균경쟁률이 7월분 5.5대 1, 8월분 9.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미천골 자연휴양림의 목련동으로 무려 325대 1 (8월2일)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7월분 추첨예약의 신청은 오는 6월 4일 09:00부터 6월 10일 13:00까지 7일간 접수를 받으며, 추첨결과는 6월 10일 17시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산림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숲에 ON '새소식', 국립자연휴

양림관리소 블로그 '휴양림소식'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추첨신청 시간과 추첨 당첨결과는 무관하므로 접속이 잘되는 시간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8월분에 대한 추첨예약은 6월 중순 경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콜센터(1588-3250)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042-580-5575) | 등록일: 2008.05.19)

국립중앙극장 '기업형 → 행정형' 탈바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현재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국립중앙극장(극장장 신선희)이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3월 24일 국립중앙극장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온 국립중앙극장이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한 부담으로 상업뮤지컬의 장기 대관 등의 공공성 논란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순수예술의 존립 및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해 설립된 국립예술기관은 공공성과 예술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함을 강조, 책임운영기관 유형변경, 극장 및 전속단체 운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4월 28일 행안부에 국립중앙극장의 기관유형을 기업형에서 행정형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고, 7일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부의 정책적 판단 등을 고려해 책임운영기관 유형변경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의 변경은 금년도 하반기 관련 법령(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3, 별표4)의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2008.05.19)

숙박 여가시설 이용객의 소방안전 확보

전국 15,754개소 펜션·콘도·민박 및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소방점검 추진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서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15,754개소 숙박시설(민박 14,805, 펜션 134, 콘도 147, 청소년수련시설 668)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점검(5.19~6.5)을 실시하여 숙박 여가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소방안전점검은 5월 하순 들어 평년 보다 높은 일시적 고온현상을 보이겠다는 기상청 예보 및 숙박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기구 설치·관리상태,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 전기·가스시설의 적정 관리 등을 중점 점검, 불량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민박 밀집지역 자위소방대 편성, 경운기 등 농기계를 동력소방펌프로 활용, 산간오지·해변가 등에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으로 초기진화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민박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

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는 교육연구·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여건에 따라 민박 등 관계인 및 투숙객에 대한 소방안전 방문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소방훈련도 추진하는 등 여름철 소방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문의: 소방제도과 소방경 김시철(02-2100-5333) | 등록일: 2008.05.19)

숭례문 2012년까지 본모습 되찾는다

문화재청, 복구 기본계획 발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재로 훼손된 지 100일째를 맞는 20일(화) 오전 11시 숭례문 화재 수습현장에서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화재 이후 문화재청은 자체 인력으로 추가붕괴 방지 등 현장 안전조치와 부재 수습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 온 한편, 복구자문단 및 문화재위원회 자문·검토를 거쳐 숭례문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왔다.

일제 훼손 이전 상태로 복구…서울 '랜드마크' 로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 모습으로 복구해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완벽한 복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숭례문 복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사용해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 유지, 일제에 의해 훼철된 좌우측 성곽과 원래의 지반 복원,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량 기술자 참여, 학계 등 원로 전문가로 복구 자문단 운영, 예산·기술지원·공사시행을 문화재청이 담당(국가직영)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진행된다.

문루 복구·육축 보수…첨단 방재시스템 구축

숭례문 복구공사는 문루 복구, 육축 보수, 성곽 및 원지반 복원, 방재시스템 구축까지 범위로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화재 피해가 집중된 '문루'는 1965년 발간된 '수리보고서'와 2006년 작성한 '정밀실측도면'을 토대로 하되, 생존 원로기술자('60년대 보수 참여)들의 증언과 옛 자료 수집 등 고증을 거쳐 보수할 계획이다.

성문 하부 석축을 이루는 '육축'은, 동절기 소방수 유입에 따른 구조적인 안전문제와 함께 좌우측에 복원될 성곽과의 일체성 등을 감안, 정밀진단 후 해체 보수하게 된다. 일제에 의해 훼철된 좌우측 성곽과 주변 지반은 발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원지형(현재의 1.6m 밑)에 맞추어 복원하며, 발굴 조사로 연못터가 확인될 경우 함께 복원하게 된다.

아울러 목조 문화재 및 방재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설치 기준을 마련한 후 방화 등 테러와 재난에 대비한 적외선 열감지기 등 감지장치와, 스프링클러 등 첨단방재설비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 5월 7일 숭례문 복구를 전담할 조직으로 '숭례문 복구단'(단장 문화유산국장, 총 10명)을 구성하고, 하부 실무조직으로 부단장(건축문화재과장) 이하 3개 팀(복구공사팀, 실측고증조사팀, 행정지원팀)을 편성했다.

앞으로 서울시·중구청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학계, 기술계 등 원로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숭례문 복구자문단'을 고증·기술·방재 분과로 나눠 위촉·운영하고 있다.

250억원 투입해 3단계 추진… 2012년 완료 목표

전체 복구사업은 수습 및 준비, 조사·발굴 및 고증·설계, 복구공사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일단 5월 말까지 숭례문 현장 내 수습부재를 경복궁내 궐내각사터에 마련된 부재보관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제1단계인 수습 및 복구준비 단계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발굴·고증·설계 단계는 오는 6월부터 2009년까지 1년 7개월 동안 진행된다. 발굴조사와 함께 부재 정밀분류, 소요부재 물량 산출, 복구공사 실시설계, 복구현장 공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복구공사 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설치미술을 적용한 가름막 설치를 시작으로 문루 및 육축의 해체 보수, 문루 단청, 가설덧집 해체, 주변 환경 정비를 거쳐 준공하게 된다. 전시관 건립과 복구현장 공개 작업 등이 병행될 것이다.

이상의 일정은 숭례문 주변 발굴조사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되도록 소모적인 공기 지연 없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화재 수습부터 2012년 복구 완료까지 투여될 사업비는, 숭례문 및 성곽 복원에 186억원, 국민기념공간으로 조성할 전시관 건립에 40억원, 설계 및 감리 등 부대비용에 24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약 2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문의: 숭례문 복구단 이정연·정금호(042-481-4865, 4917) | 등록일: 2008.05.20)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달 말 재출범

위원장에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내정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존치키로 합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5월 하순부터 재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돼 왔으나 이번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08.2.4일 시행)'에 의한 법정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

국가지속위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정립, 에너지 저소비·저탄소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비용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지속위는 임기 2년인 민간위원 24명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내정된 상태다. 본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던 기존의 기획운영실을 실용정부 취지에 맞게 대폭 축소해 실무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단장은 환경비서관이 겸임한다.

국가지속위는 5월 하순 첫 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 등록일: 2008.05.20)

이명박 대통령 "지방이 잘돼야 대한민국도 잘 되는 것"

대구·경북 방문… "변화와 개혁은 불가피한 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공식 방문하고 오전 10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발전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구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기공식'과 '고령 가야문화권 개발사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

이번 대구·경북방문은 지난 7일 전북에 이어 두 번째 시·도 방문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각 자치단체에 확산·전파하는 한편,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가 되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대구·경북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각 시·도가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지방이 경쟁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고, 지방경기가 나쁘면 대한민국 경기도 나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물가 오르고 일자리가 계획대로 되지 못해 젊은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구조조정하고, 규제 완화하고, 지방에 자율권을 주고, 지원을 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운 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 1, 2년만 참아달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다. 물론 변화와 개혁은 오랜 관습에 젖은 우리에게 불편,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국가가 최고 경쟁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각각 지역발전전략과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 시장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건설을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프로젝트 등 네 가지 발전전략을, 김 지사는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 건설을 위한 미래형 신성장산업육성 등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보고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인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부품소재산업(IT, 지능로봇, 지능형 무인자동차),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21일 오후 2시 대구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기공식에는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대구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주민 및 인근 산업체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된다.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147만㎡에 들어설 이 산업단지는 대구도시공사를 시행사로 총 4,0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인데, 기계·금속·전기·전자·정보통신 등 첨단업종이 입주하여 3만여 명의 고용창출과 3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기공식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호강 산업벨트와 낙동강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성서5차 산업단지의 착공은 대구신성장산업의 거점이자 경제중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구가 내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야 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기공식에 이어 대통령 일행은 경북 고령군 지산리 가야문화권 개발현장을 찾아 대가야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이태근 고령군수로부터 '가야문화권 광역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이건무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중앙인사와 경북 성주군, 달성군, 경남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전북 장수군, 남원시 등 가야문화권발전협의회 소속 단체장(일부 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은 "그간 가야문화가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영호남의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가야문화권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국민통합의 모범적인 광역개발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청와대 | 등록일: 2008.05.21)

선진국 관광개발 프로젝트 경험 배운다

문화부 · 관광공사, 2008 관광투자전략 국제 워크숍

선진국형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국내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기반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08 관광투자 전략 국제워크숍'을 23일 오전 10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문화부는 그동안 관광개발에 대한 선진사례와 국내 관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네 차례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투자가치가 높은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널리 알려왔다.

이번 워크숍에선 도시계획 및 정책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드미트리 아이언니디스 미 미주리대 교수가 '레저유토피아 건설: 도시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아이언니디스 교수는 발표에서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개발의 최근 추세와 민간 부문의 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라스베가스·두바이 등 선진외국의 레저도시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관광개발 트렌드를 전해줄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선진국형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해외의 관광개발 추진·투자 전략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 및 지자체, 국내 외국기업, 관광사업자, 관광 유관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투자지원팀(02-3704-9924), 한국관광공사(02-729-9476) | 등록일: 2008.05.21)

흥겨운 우리 가락에 한번 빠져볼까

문화부, 8개 시 · 도 야외공연장서 국악 등 주말 공연

매주 주말이면 우리 가락의 장단에 엄마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어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개 시·도의 공원, 놀이마당 등 야외공연장에서 매주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퓨전국악, 전통춤, 민요, 판소리, 전통연희 등을 소재로 총 237회(지역별 평균 25회 이상)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단순히 국악공연을 보여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관객이 참여해 국악의 멋과 흥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신진국악인이 얼굴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문화부는 전체 출연자의 20% 이상을 신진 국악인으로 구성해 신진예술가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신진예술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전통예술 진흥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전통예술과(02-3704-9563) | 등록일: 2008.05.21)

자연친화적「국립공원 생태관광」도입

환경부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에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친환경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관광(Eco-tourism)은 자연 속에서 해설과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향유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관광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번 달부터 금년 말까지 지리산권과 태안해안권 2개권역에 대하여 생태관광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20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8개권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국·도립공원, 습지·갯벌·철새도래지 등 생태보호지역, 역사문화시설과 연계된 전국적인 생태관광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생태우수지역의 핵심이 되는 DMZ축, 하천-연안생태축, 산악생태축을 중심으로 8개 생태문화권에 특성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생, 가족단위, 직장인 등 연령층별, 집단별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첫 프로그램으로 5월 24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에서 1박 2일형 또는 당일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나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생태관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MOU를 체결하여 홍보마케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참가자는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 생태관광 참가신청: 인터넷(visit.knps.or.kr/예약서비스) 또는 전화예약

(환경부, 문의: 자연자원과 이진용 서기관(02-2110-6751) | 등록일: 2008.05.21)

국립수목원 토요일에도 개방한다

국립수목원(옛 광릉수목원)이 오는 31일부터 토요일에도 개방됨에 따라 학교가 쉬는 토요일

등에 가족과 함께 방문, 자연학습과 관람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식물원이 개원된 이후 식물자원의 보고이자 자연환경교육의 장으로 국민의 깊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숲 보전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주말 개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예약입장제 정착으로 방문객 조정이 가능하고 관람객의 인식이 광릉숲을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한다는 이해가 높아진 데다, 주5일제 근무로 주말개방 요구가 늘고 있어 토요일에 관람을 허용하는 대신 월요일에는 휴원해 광릉숲 보호의 기본원칙은 지키면서 개방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토요일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므로 1일 관람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는 월요일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목원이 개발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소 수목원 접근이 어려웠던 국민들에게 광릉숲의 중요성과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릉숲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차혼잡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은 장애인 및 경로우대증 지참자에 한해서만 개방하고 일반인에게는 "토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수목원 가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까지 버스를 증편(3-3번, 광릉내 - 수목원 구간)하고,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목원 웹사이트에 서울 및 인근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립수목원을 찾아오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토요일에 수목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na.go.kr)나 전화(031-540-2000)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특히 주차장을 이용코자할 경우에는 장애인증 및 경로우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문의: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이정후(031-540-1021) | 등록일: 2008.05.2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 발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정책 자문기구인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새 정부가 콘텐츠 진흥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고,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콘텐츠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는 금년 8월 말까지 산업계, 전문가 및 학계 중심의 민간 주도로 운영하면서,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 5개 분과장도 산업계 및 학계 인사를 위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5월 23일(금) 발족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훈 회장을 비롯, 총괄 분과인 전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 전략위원회 위원 명단 (14명)

- 위 원 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 부위원장: 유해영 단국대 교수
- 위　　원: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산업팀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박용찬 인터젠컨설팅 대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유승호 강원대 교수, 원광연 KAIST CT대학원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이대희 고려대 교수, 이병욱 전경련 본부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차문중 KDI 연구원, 황민하 KOTRA 본부장

'추진위원회'는 총괄 분과로 전략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콘텐츠산업의 핵심 이슈별로 5개 분과, 즉 콘텐츠개발 분과, 투자유통선진화 분과, 글로벌시장개척 분과, 저작권 분과 및 제도개선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업계 대표,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분과는 분과장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분과별 논의결과를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계획 (Action Plan) 형태로 정리하여, 전략위원회를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운영지원단 (단장, 콘텐츠정책관)을 설치하여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토대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 최종적으로 9월 경 '콘텐츠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문화산업정책과 이해돈사무관(02-3704-9622) | 등록일: 2008.05.22)

'탄광 섬'에서 '관광 섬'으로의 변신은 무죄

[범선타고 일본여행] 나가사키의 이오지마

일본의 섬은 어떤 모습일까?



나가사키시 여객선터미널여객선터미널 내부. 휴식시설, 매표소, 운행시간표, 운임표 (위좌부터 시계 방향)

우리나라 섬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필자에게 일본의 섬은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마침 나가사키에서 펼쳐지는 범선축제에 참여하여 섬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월 26일, 서둘러 나가사키시의 이오지마로 향했다. 평일 나가사키항의 여객선 터미널 내부는 한산하다. 의자를 한쪽으로 배치해 이용객이 표를 쉽게 구입하도록 공간을 최대한 늘렸다. 행선지별 요금표와 시각표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자판기에서 표를 구입하여 여객선에 오른다. 여객선 내부는 1·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밑에 매점이 자리한다. 내부는 1·2등석 구분을 없애 관광객의 취향대로 앉게 했다. 이오지마까지 20여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가 고려됐다. 2층에는 터진 휴식 공간을 두어 바닷바람을 맞고자 하는 승객의 취향을 배려했다.

효율적인 접안시설과 문화공간으로의 방파제



여객선 내부1층, 2층, 2층의 터진 휴식공간, 매점과 층계 (위좌로 시계방향)

여객선이 양쪽으로 늘어선 방파제 사이를 가로질러 부두에 닿는다. 먼저 섬의 접안시설과 방파제에 놀란다. 접안시설은 배가 정박하는 곳이다.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기능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설이다.

이오지마는 아무 곳에나 접안해도 무방할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갖추고 있다. 관광 섬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접안시설이 마땅찮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접안에 애를 먹는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온다. 방파제는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 시멘트의 칙칙함을 없앴다. 우리의 칙칙한 방파제를 볼 때마다 섬 이미지의 알림터 역할과 문화공간으로 활용 등을 생각했는데 영락없이 머릿속에 그렸던 방파제 모습이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방파제는 부딪치는 파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덜하도록 구멍 뚫린 직각 콘크리트를 이용해 파도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했다. 우리의 방파제가 구멍 없이 막힌 밋밋한 구조여서 조그마한 파도에도 충격을 받고 태풍에도 쉽게 금이 가고 파손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방파제 보수비용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탄광의 섬' 이미지 벗고 '관광 섬' 으로 변신



접안시설 등. 여객선 접안시설, 부두와 구멍 뚫린 방파제 접안시설, 방파제 그림, 방파제(위좌로 시계방향)

온천과 해수욕장, 요트의 섬 이오지마의 첫인상은 밝고 깔끔하다. 야자수와 서양식 건축 형태의 유럽풍 컨셉을 확연히 느끼도록 꾸며졌다. 대합실과 정류장은 물론, 동사무소・경찰서・도서관・자료관 등 공공건물까지 섬 이미지에 맞는 형태와 색깔로 갖추었다. 이오지마의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렇듯 섬을 가꾸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 혼다 마사가즈(本子正和, 53)씨는 "최근 해안 광장에 섬 이미지에 어울리는 올리브 나무 400주를 심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올리브를 심어 섬 이미지를 확대해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한다. 미래를 위한 것임에 틀림없을 터이다.

이오지마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다. 나가사키시 문화관광부 국제과 아라키 게이코(32)씨는 "반농반어의 생활로 생계를 꾸리던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인) 1941년 탄광이 발견되어 (군수물자를 대던) '탄광의 섬'으로 유명했다"며 "1972년 폐광 이래, 탄광의 섬이란 어두운 이미지가 각인됐던 곳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일본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지만 이후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고령화로 생기를 잃어가던 '적막의 섬'으로 변해갔다"면서 "어두운 섬 이오지마가 밝은 이미지의 관광 섬으로 변신은 1985년부터다"고 덧붙인다. 밝은 이미지의 섬으로 변화하기까지 그 노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 남는다.

(국정브리핑, 넷포터 소식, 정책넷포터 임현철(limhyunc@hanmail.net) | 등록일: 2008.05.23)

[서울특별시] 서울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서울관광마케팅(주) 국제회의 유치지원 신청 접수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서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사장 구삼열) 컨벤션뷰로본부(www.seoulcvb.org)를 통해 이루어지며, 금년도 서울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신청은 5월 19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 예정이거나 유치 확정 후 외국인 참가자 마케팅활동을 하는 단체이며 국제회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이밖에도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는 단체나 협회, 학회에서는 서울시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컨벤션뷰로를 통하여「유치과정에 대한 자문」,「서울시의 행정지원」,「유치제안서 제작자문」,「각종 서울홍보물: 서울홍보 동영상, 포스터, 사진, 홍보책자, 기념품 제공」과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 기획사 및 국내외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 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국제회의 또는 기업회의(MICE) 등을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 추진 중인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과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개최의사를 가진 잠재 수요자들의 열의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신청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이나 컨벤션뷰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컨벤션뷰로본부,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경쟁력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답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담당: 경쟁력강화본부 경쟁력정책담당관 박옥산(2171-2446) | 등록일: 2008.05.19)

[서울특별시] 산책하면서 바람을 가르는 요트대회 보세요

5.21~25 한강에서 전국 선수권 요트 대회 개최

일찍 찾아온 여름 날씨를 계절에 맞게 시원하게 즐길 수는 없을까? 야구, 축구 등은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수상스포츠는 텔레비전만 봐야 하나? 강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증가하는 수상레저스포츠에 관한 관심과 요트 인구 저변확대, 한강을 이용한 수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강 난지요트장에서 전국선수권 대회인 "제1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전국단위의 요트대회가 부산, 통영, 제주 등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도권 시민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고 축제의 장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도심 하천인 한강에서 제1회 전국 선수권 요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간 요트대회는 우리나라의 해양지역에서만 개최되는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요트대회에서는 요트가 모두 바다로 출항함에 따라 일반 시민고객들이 전혀 참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한강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요트 인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도심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가족이나 연인끼리 산책하면서도 요트 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강을 바라보며 형형색색의 돛을 단 요트의 경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수상관광콜택시를 이용하면 해외스포츠 중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요트참관투어가 가능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경기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요트대회를 참관하는 방법은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한강난지요트장에 오시면 전국에서 온 선수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한강난지요트장으로 오는 길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6호선 마포구청역 7번 출구(1,300m),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2,000m)를 이용하면 되고, 토·일요일에는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4번 출구에서 맞춤버스 8773번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요트연맹 서울특별시요트협회 홈페이지(http://www.syac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행사기간 중 요트참관투어는 (주)즐거운서울(☎1588-3960)에서 예약문의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상레저스포츠의 대표격인 요트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시민고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한강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수상레저스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동시에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담당: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과 김성국(3780-0776) | 등록일: 2008.05.20)

[부산광역시] 외국인 의료관광산업 허브화

부산지역 거주 외국인 및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 200개소 지정관리

.부산시에서는 첨단의료산업이 IT산업에 뒤이은 차세대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부산을 해외 의료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부산지역의 우수한 의료시설 및 의료수준과 따뜻한 지역적 환경,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장점을 연계한 의료관광의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등 "세계적 의료 허브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7개국 27,662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류열풍 등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의료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시설환경 및 의료서비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시설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 외에도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 전용 의료시설 등의 확충 등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1달간 각 구·군 보건소를 통하여 추천받아 외국인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역 가능하고 의료시설이 우수한 부산지역 내 의료기관 200개소 (종합병원 25, 병원 38, 의원 90, 치과 병·의원 33, 한의원 14)를

1차로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이번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과 향후 추가지정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통역자 배치,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확보, 외국인 전담직원 양성 등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갖추어 나가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의료관광 상품개발 등을 통하여 부산의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에 지정된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은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뿐 만 아니라 "가이드 북"으로도 발간하여 재외공관, 공공기관,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에 배치하여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보건위생과 박은철(888-2815) | 등록일: 2008.05.13)

[부산광역시] 용두산공원·자갈치시장, 관광특구 지정 추진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PIFF광장, 국제여객터미널, 40계단 문화관광거리, 부산근대역사관 등 전국적 명성이 높은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는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 지역과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등 1.038㎢(중구 전체의 37%) 관광특구 지정

.부산시가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광복로 등 전국적 명성이 높은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는 중구를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한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명명된 이번 관광특구는 중구청이 신청한 "다운타운 부산 중구" 관광특구를 부산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명칭으로 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이 위치한 해양관문으로 무한한 관광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중구는 문화 및 쇼핑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새로이 건립될 부산롯데월드와 연계해 일본·중국·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관광특구」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 기금보조 또는 융자 가능하고, 광고물표시방법 완화, 관광특구의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건축규제가 완화돼 대지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율이 증가되는 등 관광특구 특화육성으로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부산시는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해 시 주관사업으로 부산롯데월드 건립, 용두산재개발, 자갈치관광단지 조성, 북항재개발, 부산문화체험관 등을, 구에서는 광복로시범가로 조성, 자갈치연안 정비, 도시경관 종합개선, 보수동 전통문화 거리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의 특구진흥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해운대 관광특구에 이어 두 번째 관광특구가 된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08.05.14)

[부산광역시] 제5회 차이나타운 축제 개최

5.16 ~ 5.18 상해거리 일원, 축제를 통한 한 · 중 특색 있는 문화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체험) 거리 제공, 상해거리 국제적 관광명소로 활성화 추진

.한 · 중 문화한마당인 제5회 차이나타운 축제가 5월 16부터 5월 18일까지 사흘간 부산 동구 상해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차이나타운특구 축제는 부산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국내거주 중국인과 화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부산의 대표적인 한 · 중 문화관광 축제로서 한 · 중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 (5.16) 오후 5시 상해거리에서 성공기원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막 점등식, 불꽃놀이 등 축제가 이어지며 중국기예단의 공연과 연예인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토요일 (5.17)과 일요일 (5.18)에는 '니하오 차이나' (중국관련 퀴즈, 상하이 트위스트), 수타면 시범 및 중국요리 시식회 체험, 시민가요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중국 발마사지, 중국 전통 대점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일반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동구 초량1동 상해거리 및 초량2동 외국인거리 일원 등 총 114,917㎡ (34,762.4평)를 지역발전특구로 지정하였으며, 그 동안 부산시와 동구에서는 이곳 상해거리 일대를 역사적인 명소로 보존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상해문 건립에 이어 주민센터도 중국풍으로 리모델링 하였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인 서비스센터 설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박원영(888-3512) | 등록일: 2008.05.16)

[부산광역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산관광 전략회의 개최

5.19(월) 16:30~17:30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부산관광 관련 각계대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전략 회의 개최

21세기 부산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핵심전략산업인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산관광 전략회의가 5월 19일 오후 4시 30분 누리마루에서 개최된다.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활용과 관광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 각종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자치단체장, 학생, 일반시민 등 각계대표 100여명이 참여한다.

부산시는 2020 관광천국 부산을 목표로 크루즈, 해양, 의료, 문화 · 생태체험, 쇼핑, 컨벤션 등 6대 관광명품개발, 동·서 부산, 원도심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부산관광공사 설립, 관광컨벤션뷰로 확대 개편,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 관광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강도 높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의 '2020 관광천국 부산'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전략관광 상품의 개발과 체계적 품질관리 및 마케팅 추진, 민간기업의 전문성 · 창의성 활용, 지역 관광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갖게 된다.

회의진행은 허남식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태만 교수(해양대학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중국 관광객 중심), 성은희(동서대학교) 관광명품 개발1(크루즈), 강남이 본부장(호한방 아미스타) 관광명품 개발2(의료관광 사례) 순으로 주제발표 뒤 자유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민간주도형 협의체인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해 관광, 컨벤션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현업 종사자, 연구·교육기관, 직능단체, 위원회, 동원회 등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정보 교류,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진흥 전략 및 모델 개발·수행, 특색 있는 지역대표 관광 상품 개발·지원 등 부산관광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김홍섭(888-3502) | 등록일: 2008.05.16)

[부산광역시]『불꽃축제, 한류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제4회 부산불꽃축제 기본계획 확정

.부산시가 제4회 부산불꽃축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광 인프라와 연계, 이번 축제를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불꽃축제, 한류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로 부산의 바다와 하늘을 수놓을 다양한 불꽃이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매료시킬, 제4회 부산불꽃축제 행사는 오는 10월 17일, 18일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원에서 전야제와 본 행사로 나누어져 치러진다.

부산시는 올해 불꽃축제를 관광 인프라와 연계, 부산을 대표하는 체류형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불꽃과 첨단시스템이 어우러진 최고 수준의 불꽃축제로 전야제에는 약 50분 동안 시민참여형 불꽃과 해외초청팀(1개 팀) 불꽃쇼가 진행되고 본 행사에는 약 50분 동안 세계 최대, 최고수준의 국제적인 매머드급 첨단 멀티 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지역의 해외 홍보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민+관」협조하에 교통안전 등 완벽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1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부산불꽃축제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인과 지역의 희망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의 희망과 번영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8만5천여 발의 화려한 불꽃과 최첨단 레이저 조명, 웅장한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규모의 불꽃축제로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17일 전야행사에서는 1막 -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불꽃쇼 연출(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사연접수, 국내최초 도입시행), 2막 - 해외초청 불꽃쇼(부산시와 자매결연 하고 있는 도시의 최고수준 불꽃팀 초청) 테마로 멀티미디어쇼와 불꽃쇼가 펼쳐지고, 18일 본 행사에는 1막 - 화려한 축하공연(해상무대)을 시작으로 국악과 힙합의 만남, 줄타기 등 다양한 행사 이벤트를 마련하여 불꽃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2막 - 국내외 150만 관광객이 다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세계최대 매머드급 환상적인 불꽃쇼가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원에서 펼쳐진다.

부산불꽃축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광안대교를 활용한 빼어난 연출, 그리고 작열하는 불꽃을 근거리에서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백사장 관람석은 어느 도시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경쟁요소이다. 이번 불꽃은 약 8만5천여 발의 화려한 연화와 최첨단 레이저 조명, 웅장한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광안대교를 이용하여 세계최장 1㎞ 너비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출하며, 하늘을 나는 불새 연출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또한, 관람객의 희망 사연을 소개하며 소

망 성취를 기원하고, 불꽃 연출 해외초청팀에 의한 불꽃쇼도 연출된다.

숙박시설 및 다양한 먹거리 등 관람하기 편리한 행사장 주변시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양일간 해운대 동백섬의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화장실, 쓰레기 수거, 바가지요금 등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담당: 문화예술과 김창수(888-3475) | 등록일: 2008.05.19)

[부산광역시] 부산시 - 관계기관, 김해국제공항 운영활성화 방안 협의

부산시 · 부산지방항공청 · 5전술비행단 등 관계기관 참석해 운항통제시간 조정을 위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조치방안 등 협의

.부산시는 오늘(5.19, 월) 오전 10시 30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안준태 행정부시장 주재로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공군, 강서구청,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김해국제공항 운영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적 인프라 시설인 김해국제공항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통제시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운항 통제시간 조정을 위한 선결과제인 김해공항 주변 소음피해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김해국제공항은 국제여객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 운항 통제시간으로 인해 국제선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럽 및 미주노선 등 장거리 노선이 개설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역외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 항공화물노선도 개설되지 않아 지역에서 생산된 수출 항공화물과 수입 항공화물이 역외 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기업은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부산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에서도 항공기 운항통제시간 축소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교통기획과 송종홍(888-4021) | 등록일: 2008.05.19)

[대구광역시]『낙동강 뱃길탐사』추진

5.16(금) 14:00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낙동강 대구구간 탐사

대구시는 경부운하 계획과 연계한 낙동강운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시 실무추진단 등으로 탐사단을 구성하여 하천의 실태와 생태환경, 수변경관 등 기초적인 탐사를 통해 낙동강 뱃길 잇기 복원 및 운하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보트를 이용한『낙동강 뱃길탐사』를 실시한다.

금번에 실시하는 1단계 뱃길탐사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시 실무추진단 등 20여명으로『낙동강 뱃길탐사대』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성주대교 하류지점에서 죽곡취수장(L=10㎞)까지 보트를 이용하여 낙동강 대구구간(일부구간)을 실시한다. 뱃길탐사 후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달성습지로 이동하여 습지주변의 생태환경 등을 직접 답사한다.

또한, 2단계로 낙동강 권역의 강수량이 늘어나서 보트탐사가 가능한 금년 하반기에는『낙동

강 뱃길탐사대』를 구성하여 달성군 현풍에서 낙동강 하구언(L=165㎞)까지 수심, 강폭, 토사 등 하천상태와 습지, 저류지, 수변 경관 등 생태환경자원, 하천 구조물 등을 직접 탐사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낙동강운하추진단(803-2653) | 등록일: 2008.05.14)

[인천광역시] 2008년 관광학부 학생 팸투어 실시

우리 인천은 선사시대와 비류백제, 고려시대 항몽, 근대 개화기로 이어지는 소중한 역사문화와 동북아 최대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및 근해에 아름다운 150여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민족역사의 모든 시대적 단면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천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에듀투어(Edu-Tourism) 기능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지역의 명소 및 미래상을 담은 코스탐방을 통하여 인천을 소개함으로써 졸업 후 관광업무 종사시, 인천 관광 방문객을 일선에서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난해 처음 관광학부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금년에도 관광사업 최일선에서 인천홍보 역할을 기대하며,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관광학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다.

팸투어 코스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송도갯벌 타워 홍보관과 인천대교홍보관, 6.25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기념하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개항이후 근대 건축물, 드라마셋트장,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강화도의 고인돌, 광성보, 전등사 등을 방문하게 된다.

21세기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의 미래상은 관광분야 최일선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 개개인에게 미래설계에 정보가 될 것이며, 미래도시 인천을 미리보기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김문숙(440-4054) | 등록일: 2008.05.20)

[울산광역시] 동남권 신국제 공항 조기 건설 건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 '낙동강운하 조기 건설' 도

울산을 비롯하여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동남권 신국제 공항 조기 건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시장 박맹우), 부산시(시장 허남식), 대구시(시장 김범일), 경북도(도지사 김관용), 경남도(도지사 김태호)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23일 오후 3시 대구스타디움 상황실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동남권 신국제 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발표한다.

영남권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에서 동남권 신국제 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제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아울러 제2단계 과제로 발주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에 국제적인 허브공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영남권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낙동강운하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건의한다.

영남권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에서 반복되는 홍수 피해, 만성적인 수량 부족, 침전물의 누적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치수기능을 강화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뱃길 정비를 위해 '낙동강운하'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낙동강운하는 낙동강의 하상경사가 완만하여 건설이 용이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조기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한편 영남권 시·도지사 회의는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 현안 추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번에 대구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울산광역시, 담당: 기획관실 유재균(229-2151) | 등록일: 2008.05.23)

[광주광역시] 외국어 전문 관광가이드 양성교육 실시

영어, 일어, 중국어 총 25명 모집, 양성기관 선정·위탁

광주시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을 전문적으로 안내할 관광가이드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과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광주관광에 관심이 있는 외국어 관광가이드 교육생 25명을 지난 16일부터 6월 2일까지 모집하고, 위탁기관도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비용절감을 위해 현지 관광가이드를 선호하고, 향후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국제회의산업 육성으로 외국인의 광주방문이 급증할 것에 대비, 외국인들을 총체적으로 안내할 통역 관광가이드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 일어, 중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자로 만 40세 미만의 광주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자를 선발, 교육을 통해 전문 가이드로 양성한다.

특히, 이번 양성교육은 광주와 인근지역의 관광자원과 교통, 숙박, 음식, 산업뿐만 아니라 타국과 문화비교, 항공업무, 관광법규, 응급대처 요령 등 가이드로서의 전문교육 192시간과 현장교육 64시간 등 총 256시간으로 구성, 통역 관광가이드로서의 자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에 양성하는 외국어 전문 관광가이드를 내년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및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가이드로 활용하고, 국제회의와 세미나, 전시회, 산업시찰 참가자 등의 통역가이드로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교육으로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광주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와 안내로 민주평화도시 및 문화수도의 위상을 보여줌으로써 광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과(613-3633) | 등록일: 2008.05.20)

[강원도] "강원 관광의 얼굴" 도로변 휴게소가 새로워진다

강원도는 지난해 관광객 8천만 명 시대 개막에 이어 2008년을「관광객 수용태세 정착」의 해로 정하고,「한국관광 1번지」위상에 걸맞은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를 위하여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 4대 선진도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지난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올해에는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우리 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관광여건 조성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강원관광의 상징적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국도, 지방도 도로변 휴게소를 「강원도형 관광휴게소」 조성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지난 4월까지 실시한 도내 도로변 휴게소 72개소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 결과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미관저해, 화장실 이용 불편 및 시설불량, 휴게소 안내 입간판의 퇴색 등으로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08. 3. 25 ~ 4. 4 (8개 반 53명, 도·시군 합동)
- 조사대상: 72개 휴게소 (국도 10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 조사결과: 도색불량: 6개소, 화장실 부실: 35개소, 간판불량 등 68개소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도로변 휴게소를 강원도의 관광여건에 부합하는 관광휴게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휴게소 시설개선, 휴게소 관광홍보체계 구축, 관광상품 체험장 조성, 관광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4가지 핵심분야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게 된다.

특히, 휴게소 시설개선 분야는 건물도색, 입간판 정비, 화장실 개보수 등 도 및 시군의 예산을 일부 투자하여 금년 관광성수기 이전인 6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에서는 5월 16일까지 휴게소 대표자, 도 및 시군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휴게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원도형 관광휴게소」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세부 추진일정 등의 설명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업소대표자 (운영자)들의 운영상 건의사항과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 체감 관광경기와 강원관광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집중 토론 형식으로 전개되며, 이에 대한 각 기관별, 휴게소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도에서는 본 간담회를 계기로 휴게소 대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여름 피서철 성수기 이전에 「강원도형 관광휴게소」 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추진기간: '08. 5. 9~5. 16
- 일시/장소: 도내 3개 권역별 추진
- 주요내용: 「강원도형 관광휴게소」 정비계획 설명,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및 시설보수 계획 설명, 건의·토론

※ 조류인플렌자 발생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예방, 소비촉진 등 병행

앞으로 도에서는 휴게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일선에서 요구하는 각종 건의나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08년 수용태세 평가 시 우수휴게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휴게소 내 화장실 청결관리, 주변청소 등 환경관리, 관광정보 안내 등 자연과 어울리는 휴게소의 외형가꾸기 사업과 함께 종사자의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 4대 선진도민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관광진흥과(033-249-2774) | 등록일: 2008.05.14)

[강원도] 관광시설 인허가 개선 도·시군이 머리를 맞댔다

강원도 및 시군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광시설 인허가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 주관으로 5.15부터 5.16까지 1박 2일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60여명의 도 및 시군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한곳에 모여 마인드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관광시설 투자유치와 내실 있는 통합실무협의회 운영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공무원 인식변화를 위한 특강과 직접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인허가 불편사례 및 개선요구 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마인드 혁신에 중점을 두었으며, 토론시간을 통해 타시군의 인허가 스킬과 애로사항 등 정보교환과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경기 지역의 우수 관광시설(테르메덴 유럽식 온천)을 견학하고 관광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업체로부터 사업추진 시 어려웠던 점을 들어보는 등 투자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道는 지난 3월 투자유치사업본부 내에 관광시설유치과를 신설하고 신규 관광단지 및 관광지 승인, 민자 골프장·스키장 유치 및 사업승인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를 투자기업에 맞게 One-stop Total Service로 집중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관광시설 투자 활성화 1단계 계획으로 관광시설 인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지·농지전용 및 제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시군의 협력을 위하여 통합실무협의회[4]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허가 준비 시부터 미리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절차와 행태개선을 통한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향상된 만큼 인허가 기간단축으로 이어져 강원도 관광산업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광시설유치과(033-249-2951) | 등록일: 2008.05.16)

[강원도] 「동해·속초-러시아-일본」 2개 국제 신항로 개설 가속화 총력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조기개설 추진 –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추진 중인 도내 동해안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동해·속초항과 일본~러시아간 2개 국제 신항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해항은 「일본 사카이미나토~러시아 블라디보스톡」간 국제 항로개설을 위해 사업자인 DBS 크루즈훼리(주)에서 지난 2.21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09.2월 취항을 목표로 현재 자본금 확보를 비롯한 선박확보 등 항로취항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취항과 관련한 기반시설 구축 등 본 항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

4) 통합실무협의회: 관광시설 인허가 시 여러 부서 중복방문과 처리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처리기간 과다 소요 되던 업무관행을 탈피, 산지·농지전용 및 제영향평가 등 도·시군 인허가 의제처리 실무담당자가 모여서 한번에 협의하는 협의체

록 종합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본 항로와 관련하여 지난 4.10 강원도 김진선 도지사와 돗토리현 히라이신지 지사 간에 조기 항로취항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며, 또한 4.28일 도를 방문한 일본 돗토리현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항로개설 촉진을 위한 양도간 준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교환과 함께 국제여객선터미널 시설을 비롯한 출입국 관련 시설 등 항로개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간 협력을 통해 조기에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오는 5.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함께 CIQ 입출항 관련기관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항로사업자인 DBS 크루즈훼리(주)로부터 준비상황 등 전반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의 취항준비 상황과 사업자 의지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준비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항로 개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가시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오는 5.27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한·일 수산 세미나에 전영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이 참석하여 일본 돗토리현 지사 및 관계자를 만나 강원도의 항로개설 준비추진 상황과 일본 측 준비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한·일간 항로개설 의지를 확인함과 아울러 금후 항로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속초항은「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간 국제 항로개설을 위해 강원도와 속초시, 범한상선 등 한국 측과 일본 참여사인 북동아시아훼리재팬 (주), 러시아 참여사인 베르굿사, 중국 참여사 등 4개국이 공동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인 민·관 합작법인 (가칭 : 동부아훼리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국제 신항로 개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속초시, 범한상선 등 한국과 일본 참여사가 출자를 완료된 상태에서 도에서는 현재까지 출자를 미루고 있는 러시아, 중국 측에 대해 조기에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항로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 중에 있다.

중국, 러시아 참여사의 출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항로인 백두산항로 운항사인 동춘항운과 러시아 파트너사간 이해관계로 인한 항로중단사태 장기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강원도에서는 속초시와 공동노력을 통해 백두산항로 정상운항 재개가 이루어져 신항로 개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항로 참여국인 일본, 중국 측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는 적극적인 해결노력으로 지난 5.12일 속초시에서 신항로 개설 일본 참여사인 북동아시아훼리재팬 (주)사장과 협의를 갖고, 공동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참여사 측 제안에 따라 오는 5.3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신항로 개설 참여 4개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민간 참여사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본 회의에 도와 속초시, 범한상선 대표가 함께 참석, 4개국간 이해협력에 의한 중재노력을 통해 백두산 항로 조기 정상화 재개 방안을 강구하고, 러시아, 중국 측 신항로 개설 출자금 완료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신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금후 신항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033-660-8381) | 등록일: 2008.05.19)

[경기도] 제9회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한다

수원화성 나전 명함집에서 바우덕이 인형까지!

경기도는 도내의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할 경기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기도 우수 관광기

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9회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상품 및 시·군 특화분야와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아이디어 분야이며, 축제·관광지·인물·특산품 등 경기도 관광자원의 특색을 살린 상품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도는 입상자에게 총상금 5,000만원이 걸려있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도대표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접수는 시·군 문화관광과에서 6월 11일부터 6월 13일(3일간)까지 실시하며, 참가신청서 양식, 공모전 개최요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웹사이트(www.gg.go.kr) 및 경기도 관광안내 웹사이트(www.ggi1330.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년부터 달라진 점은 시·군 특화분야를 신설하여 관광기념품 분야에 시·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색이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는 점이다.

이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안성 바우덕이 축제, 파주 DMZ 또는 숨어 있는 도내 명소와 인물, 특산물, 축제까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념품으로 개발되어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념품이 되길 기대해본다.

(경기도, 관광문화산업과 | 등록일: 2008.05.13)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위해 서해안 군 철조망 철거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대 2.1㎞ 군 철조망 철거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 대회 성공 위한 조처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군대도 적극 협조

6월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앞두고 경기도는 군과 협조해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 설치된 군 철조망을 철거해 대회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군 당국은 5월 14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주변 3m 높이의 군 철조망 2.1㎞ 구간을 모두 철거했다. 오늘 철거된 군 철조망은 안보를 위해 지난 1996년에 설치됐던 것이며 철조망이 철거된 곳에는 관광용 펜스와 CCTV 등이 설치된다.

전곡항 주변 군 철조망이 모두 철거됨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전곡항 일대에서 개최되는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는 수려한 바다 경관을 배경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제보트쇼에는 국내외 200여개 해양레저업체와 바이어, 투자자들이 참여하며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메리카즈컵 참가 선수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세계 랭킹 상위 10개 팀이 참여해 베이징 올림픽의 전초전으로 치러진다.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기간에 전곡항 일대에서는 무료 갯벌 조개잡이와 요트 시승, 승마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축하 쇼 무대,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철조망 철거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소형선박산업과 해양레저산업을 새로운 미래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왔으며, 철조망 제거 후에도 안보에는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철조망이 철거됨으로써 전곡항 일대 바다가 명실공히 민간에게 돌려졌다며 앞으로 설치될 마리나 시설과 함께 전곡항 일대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철조망 철거가 민간 국제행사를 위해 군의 적극적 협조아래 이뤄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선감 해양지구 조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서해안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249-4541) | 등록일: 2008.05.14)

[경기도] 『제1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 성대하게 열려

국제보트쇼 현장에 경기도 관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5월 14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고 보트쇼 관계자 및 관광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가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각 부서 간 업무의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감대를 넓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되는 2008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열리는 전곡항에서 개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으며, 경기도가 대 중국 관광거점지역으로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여는 전략적 의미를 감안, 팀 코벤트리 (Tim Coventry) 세계요트연맹 이사, 김광호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간의 관광협력 협약식이 개최되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하여 향후 경기도는 한국관광공사의 29개 지사망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해외에 대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을 경기도로 유치할 계획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보트쇼·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번 대회가 향후 보트산업의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해안 개발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관광산업 경쟁력 대책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김홍식 박사는 「서해안 가치의 중요성과 경기도 관광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도가 서해안을 대 중국 관광의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세계요트연맹 Tim Coventry 이사는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관심을 끌었으며, 인하대학교 유홍주 교수의 「해양레저산업 동향과 경기도 대응전략」 발표에서 미래산업으로서의 레저관광의 중요성이 역설되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관광현주소를 확인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경기관광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매월 실시할 계획으로 「남한산성」과 「장흥아트벨리」, 「백남준아트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광문화산업과(249-4728) | 등록일: 2008.05.15)

[경기도] 동북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한·중 해저터널 국제 세미나 개최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대에 달하는 중국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중·일 3국의 교역액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대를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저터널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운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은 '동북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한·중 해저터널 구상' 국제 세미나를 5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국제 세미나를 주최한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가 하루 1만명을 넘어서면서 매주 400편 이상의 항공이 두 나라를 왕래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강조했다. 양국간 질적 성숙을 기반으로 경제거리를 최대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지리적 이점에 기초한 한반도가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21세기 동북아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한·중 해저터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와 문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간 폭발적 교류 증대는 한국 서해안의 지방자치단체와 산둥성, 톈진 등 중국의 해안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 추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어 "해저터널 구상은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발표를 맡은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한·중 해저터널의 기본구상'을 주제로 양국간의 교역현황과 해외 해저터널 건설사례를 제시했다. 조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망과 일본의 신간센, 공사중인 중국의 고속철도망(베이징~상하이 2013년 완공예정)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동북아지역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경제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북한을 통과하는 거리와 비슷하나, 산둥, 상하이 등 중국 남부지역과의 통행거리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공항까지의 접근 및 대기, 비행시간을 고려하면 해저터널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저터널의 노선 대안으로는 북한지역인 용연(장산)을 포함하여 인천, 평택, 태안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4개 대안을 검토했다. 노선은 향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분	기종점	연장	기존 고속철도와의 연결방안
1안	용연~웨이하이	198㎞	사리원(경의선)~용연간 약 90㎞ 철도신설 필요
2안	인천~웨이하이	362㎞	인천공항 철도 이용 시 추가건설 필요없음
3안	평택~웨이하이	374㎞	향후 포승평택 철도 이용 시 추가건설 필요없음
4안	태안~웨이하이	320㎞	천안~태안간 약 60㎞ 철도신설 필요

해저터널이 지나가게 될 서해안의 최대수심은 80m, 평균수심은 40m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질의 경우도 터널굴착을 위한 기반암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중 해저터널은 교량방식, 침매방식, 굴착방식 등이 조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사비 차이(㎞당 공사비는 개략 2,000억원~3,500억원 수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저터널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인공섬을 25~50㎞ 간격으로 건설하는데, 이에 대해 **조응래 부원장은 "한·중 해저터널의 경우는 공해상에 대규모 인공섬을 조성하여 호텔, 컨벤션, 카지노, 해양휴양시설 등이 종합화된 해저도시를 건설하여 이용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중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여객 및 화물 물동량 예측, 공사비 산정, 경제적 파급효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한·중간 '해저터널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 물류, 경제, 재정분과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중국도 동의하고 있다.

조 부원장은 또 "세계의 해저터널 사업은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대규모의 시장으로 해저터널 건설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한·중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중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발제를 맡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 리홍(李宏) 연구원은 "한·중 교류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 관광 등 방면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2030년 한·중 연간 방문객수 4천만 명, 연간 화물운송량 3.4억 톤을 전망하고 있다. 리홍 연구원은 "급증하는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중간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해저터널 건설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미치는 파급효과'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허재완 교수는 "한·중 해저터널은 군사적인 신뢰가 없이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을 알리는 시그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중국의 발해만 지역과 한국의 서해안 지역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구축하여 동일경제권내 거대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허 교수는 한·중 해저터널이 보다 높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 동옌(董焰) 연구원,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 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희순 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 등록일: 2008.05.15)

[충청남도] 농업인·도시소비자 대상 농촌체험관광 지원

도농업기술원내 체험시설 신축 10월부터 본격 개방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체험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업기술원내에 기능성 식물원 영농체험 첨단온실, 농심체험관 등을 신축하여 농업·농촌의 이해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의 시설모델을 제시하고 활용을 확대하여 충남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와 농촌의 현실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농촌관광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농업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활성화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50년부터 농촌관광이 시작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체 관광의 29%가 농촌관광으로 대체되는 등 일반관광과 경쟁을 할 만큼 발전이 되어 있다.

현재 신축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기능성 식물원(1,238㎡), 영농체험 첨단온실(498㎡), 농심체험관(653㎡)을 9월까지 준공하고 10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하여 농업인은 물론 학생과 도시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에 교육을 겸한 농촌체험관광을 지원한다. 즉 이러한 시설을 활용

소비자와 함께하는 자연·농업체험을 통하여 농촌관광체험을 준비하거나 운영중인 농업인들에게 선진국의 사례를 교육하고 우리 농촌에서도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을 통하여 인식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능성 식물원과 과학영농체험교육 시설은 연중 개방하여 상설운영하며 문화행사로 새집증후군예방을 위한 생활원예 경진과 꽃전시회,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절에 맞는 꽃심어보기 식물체험교실과, 야생화가 피고 지는 손바닥 정원만들기 등 재미있는 원예교실도 운영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험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물과 연계한 내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교육·체험을 겸한 공간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충남농촌에 대한 희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문의: 기술보급국 허종행(041-330-6353) | 등록일: 2008.05.20)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정부에서는 의료산업이 인구고령화, 소득증가와 BT・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Post-IT 산업 중 핵심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HT(보건의료기술)와 BINT의 신융합기술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핵심 첨단의료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자, '05년 첨단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을 주요 Agenda로 설정하였으며 '08.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였다. 6월중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거쳐 사업자 공모 후 금년 11월중 입지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우리 도 조성계획 위치: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집적규모 106만㎡(오송의 컨벤션센터 포함)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경쟁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예산절감, 중복투자 방지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우리 도의 오송과 오창에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유는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가가 조성한 국내 유일의 바이오산업 단지라는 점이다. 이미 본 단지에는 의료관련 산업의 인・허가 관련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국책기관이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앞으로, 5개 생명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될 예정이고 국내 유수의 52개 의약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쳤다.

둘째 이유는 초기시설투자비 5천억 원이 절감된다. 오창과학산업 단지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조성할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0%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조성에 필요한 초기시설투자비 8천억 원 중 3천억 원만 투자하면 될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녹십자 등 국내 유수의 15개 의약업체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 지원 인프라가 확보된 상태이다.

셋째 이유는 오송과 오창지역은 국토의 중심지역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며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관련 산업과 연계가 가능 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

(충청북도 | 등록일: 2008.05.19)

[전라남도] 곡성~지리산온천 잇는 고달~산동간 도로 개통, 관광객 증가 기대

전남도, 15일 착공 10년 만에…교통편익 · 관광객 증가 기대

전라남도 곡성에서 지리산온천을 잇는 고달~산동간 도로가 착공 10년여 만에 완공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곡성~지리산온천을 연결하는 '고달~산동간 도로 14.07㎞'가 자연친화적 도로로 완공돼 15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 도로가 완공됨으로써 광주~곡성~지리산온천단지간 거리가 종전 96㎞에서 64㎞로 32㎞가 단축되고 차량이동 시간도 종전 1시간 5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무려 40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지리산 관광단지를 찾는 연 200만 명의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익 증대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도 17호선과 19호선 차량의 분산 통행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여수, 순천, 광양, 남원, 서울지역으로 출하되는 농·공산품의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달~산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1997년 10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445억원을 투입해 도로개설 14.07㎞, 교량 5개소, 터널 1개소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도로로 완공했다.

곡성군 고달면 수월리 안재인씨는 "그동안 가까운 곳에 지리산온천단지가 있음에도 구례읍으로 우회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교통이 불편했다"며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달~산동간 도로가 개통돼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낙후된 지역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고달~산동간 도로 외에 신안·완도, 화순·강진, 곡성·구례 등 5개 지구 10개 군에 도로개설, 관광지 개발 등 89개 사업 1조22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완도~신지, 팔금~암태 연도교 등 46개소에 4379억원을 투입해 정주환경조성 및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했으며, 앞으로도 2012년까지 영광 불갑권 도로개설 등 43개소에 58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앞으로도 전남 중남부권을 포함한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확대 지정돼 개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도로, 하수도,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1개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감면, 민간 사업자에게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

(전라남도, 지역계획과(286-7352) | 등록일: 2008.05.14)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용,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올인

전남도, 타이페이 직항상품 · 칭다오서 주력상품 세일즈 나서

전라남도가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을 활용, 대만 타이페이 직항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중국 칭다오에서 주력상품 세일즈에 나서는 등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무안-타이페이간 직항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올 7월 중 개최하는 '한·중 청소년 캠프 상품'의 현지 마케팅을 위해 22일까지 5일간 대만 타이페이와 중국 칭다오에서 주력상품 세일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남도가 (주)인화관광과 공동 출시한 5종의 무안~타이페이 직항상품은 4월 3일 첫 손님이 입국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매주 1팀씩 11회에 걸쳐 219명의 대만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신규 방한상품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세일즈 활동을 통해 무안~타이페이 상품의 현지 시장에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지속적인 대만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칭다오에서 산동지역 주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2008 전남도 한·중 청소년캠프 상품'을 판매한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한·중 청소년 캠프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중국 수학여행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순천 낙안읍성,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포스코 광양제철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24~25일엔 중국 내륙지역에서 출시한 '홍도 선상유람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운남지역 주요 모객여행사 마케팅담당자 15명이 전남을 방문, 상품 코스를 현지 답사한다.

명창환 전남도 관광진흥과장은 "5월 말 무안~북경, 무안~상해 국제노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맞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5월 20~21일 유럽지역 FIT (개별관광객)와 북경올림픽 경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남도 관광지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답사활동을 추진한다. 독일 Stern, Rhein-Neckar Zeitung지 등 독일 유력매체 6개사 취재진은 이틀 동안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보성 대한다원, 순천 낙안읍성 등 도 대표 관광지를 취재한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과(286-5232) | 등록일: 2008.05.19)

[전라남도] 여수박람회·F1 성공개최로 관광적자 돌파구 마련

전남도 · 국회법제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공동토론회

전라남도와 국회법제실은 20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방송(NATV)을 통해 전국의 생중계됐다. 이날 공동토론회는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전남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형 국제행사를 국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준영 도지사와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유선호 국회의원,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를 비롯하여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전남의 관광자원화 전략과 입법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시장중심의 개발전략으로 전남도만의 관광가치를 창출해야 한

다"며 "대형이벤트 개최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서의 마케팅은 물론 네트워크 구조로 관광지 공간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호문 목포대 교수는 '우리나라 레저스포츠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육상, 해양, 항공에 걸쳐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레저스포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세계3대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톤숄츠 조선대 전임강사는 'F1대회가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F1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지되어선 안된다. 대한민국과 국가브랜드 향상, 한국의 대기업 그리고 전남지역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국 F1대회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전세계인들에게 한국이 지구촌 스포츠 공동체에서 마지막 남은 도전의 기회를 거머쥐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 극대화 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취지인 지구촌 바다환경 개선과 남해안을 동북아시아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숙박 및 연구·제조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제문 국회 입법차장은 강평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과 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법제실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록 전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윤용중 국회 예산분석관, 김대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도시기획관, 김범식 성균관대 교수,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등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라남도, F1지원과(286-3020) | 등록일: 2008.05.20)

[전라북도]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사업 중앙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으로 승인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비 국비 211억원 확보 탄력

관광, 레저, 휴식 공간 확충으로 연간 128만 명 관광객 기대효과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총 490억원의 공사비 중 국비 211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인 중앙(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심사 완료되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통보되어 무주 기업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선행사업은 조기 투자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진입도로를 주변 간선도로망과 연계하여 방향별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태권도공원, 무주리조트와 기업도시가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여건조성으로 기업도시 및 주변 관광지로의 접근성 제고로 무주지역의 연계발전은

물론 동부산악권역 관광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고,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SOC지원으로 기업도시 인근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무주 기업도시가 자족형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은 관광, 레저, 휴식 공간의 확충으로 연간 약 128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건설기간 중 생산유발효과 4조원, 고용유발효과 4만 명의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전라북도, 담당: 관광개발과 관광레저산업담당 김경선(280-4283) | 등록일: 2008.05.19)

[전라북도] 2009녹색농촌체험마을 7개 마을 선정, 농식품부 추천

10개 시군, 14개 마을 신청 / 전문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 깐깐한 심사 후 선정완료

전라북도가 농촌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될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7명), 10개 시군에서 신청한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3일간의 현장 실사를 통하여 경쟁력을 담보한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원할 7개 마을을 최종 선정, 농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시작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은 마을당 2억원(국비 50%, 시군비 50%)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껏 신청된 마을을 도차원에서 탈락 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당초예상과 달리 신청된 14개 마을 중 7개 마을만이 선정되어 향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마을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가 2007년까지 조성된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52개(2008년 11개 마을 포함) 마을을 비롯하여 140여개에 이르러 양적으로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농식품부가 2010년부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예비선정제 추진에 따른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강화된 평가 기준을 근거로 신청마을의 ① 관광자원 및 여건, ② 주민들의 화합의지와 참여도, ③ 사업계획서의 실천 가능성 및 내용, ④ 중복투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합의,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군 신청 사업량과 관계없이 최종 탈락시켰다.

전라북도의 이 같은 심사기준 강화는 준비되지 않고, 실천의지와 열정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게 지원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로 보인다.

(전라북도, 담당: 농업정책과 경영인력 담당(자) 이성태(280-2837) | 등록일: 2008.05.23)

[제주특별자치도] 5월중 관광진흥 전략보고회 개최

제주도로 오십시오! 제주관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관광의 고비용·불친절 해소대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성과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5월중 관광산업 전략보고회를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 관광업계, 유관기관, 행정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14(수) 오전 8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관광산업 전략보

고회를 통하여 고비용 실태를 분석 공개한 이후 전국 평균수준 이상인 업체 954개를 1단계 목표로 추진한 결과 5.14일 현재 382업체(40%)가 동참하고 있으나, 앞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하여 상반기내 70~8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러한 자정노력의 결과 국민들로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관광 이미지를 심어주어 관광객이 전년대비 70%까지 증가하고 있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동참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음식점을 중심으로 인하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급관광호텔, 해수욕장, 골프장, 휴양펜션 등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업계에서는 유가 및 원자재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기피하거나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간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생·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의식 개혁을 위한 관광-작은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관광객 접근성을 고려한 항공좌석 확보,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종합분석 및 제도개선, 관광지 등급평가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광객, 도민, 업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업계에서는 제주관광의 고비용 문제 해결만이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자율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여행사·안내사·버스업계 등에서도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업종별 단체에서 주관하여 오랜 구조적인 관행을 확실히 개선, 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관광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고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다 송객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업계를 설득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가격인하 업체에 대하여는 관광홍보물, 홈페이지, 언론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고질적인 고비용 업체에 대해서는 도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페널티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등록일: 2008.05.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의 가치지향적 관광불편 일소 대책반이 운영된다

11개 유관 기관단체 40여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과 심화되고 있는 국내외 관광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주관광의 위기상황 타개를 위하여 고비용 및 서비스 질 혁신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촉진 전략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끊이지 않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관광불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1개 유관기관 단체 40여명이 참여하는 관광불편 일소 대책반을 2008년 5월 6일부터 8월까지 집중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반에는 제주자치도 본청 12개 관련부서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양대 항공사, 한국음식업중앙회도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도지회 등 유관기관 10개 단체의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간정례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책반의 주요기능으로는, 고질적 불편사항 분야별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항공좌석난 해소 대책협의 추진, 관광신문고 접수 불편사항 개선대책 협의 추진, 관광산업 진흥촉

진 전략 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대책 협의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정책과)에서는 금번 대책반 운영을 통하여 제주관광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불편사항과 관광 성수기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공좌석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야별 일소대책을 마련, 적극 대응해 나감으로써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소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지원, 공조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관광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 도출되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심층 분석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자원담당 | 등록일: 2008.05.19)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을 걷는다 - 한일 친선워킹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일관광교류의 해와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제1회 제주도 워킹」이벤트가 오는 6.8일부터 6.10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한국관광공사 및 아사히신문, 닛깐스포츠와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을 테마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한 행사로서 일본관광객 16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이들은 도내 참가자들과 어우러져 오는 6.9일 오전 9시에 종달 포구를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경유, 성산일출봉까지 약 7.4㎞에 이르는 코스에서 친선 걷기행사를 펼치게 된다.

또한 체류기간 중에는 만장굴을 비롯한 태왕사신기, 올인, 대장금 등 드라마로케지 탐방과 함께 주요 관광지 투어와 쇼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건강을 중시하는 일본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층인 중장년층이 주도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향후 관광이벤트로서 정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 최대여행사인 JTB와 유력 매체인 아사히신문과 닛깐스포츠에서도 참여함으로써 일본 현지에 제주를 폭넓게 알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이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환영행사 개최와 더불어 제주의 진면목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제주가 친절함이 넘치는 국제적인 관광지임을 각인시켜 나가고, 앞으로도 일본 주요여행사 등과 긴밀한 공조 하에 세계자연유산과 드라마로케지 등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소재를 십분 활용,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해외마케팅담당 | 등록일: 2008.05.21)

[법령해석사례]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1. 질의요지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아「온천법」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2. 회답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하 "온천발견신고인"이라 함)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법제처 2007. 11. 21. 07-0364,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해석례]) 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사안은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바, 온천발견 신고인이 아닌 자로서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된다는 주장은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 아닌 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동시요건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권자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온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

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에게는 특별한 법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는 경우에 굴착허가나 온천 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을 등재하는 등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온천법령 어디에도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절차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시장·군수에게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한편,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온천법」제18조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26. 개정 이후의「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을 삭제하고 그 혜택을 처음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기 전의「온천법」제18조)에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그 후 현재까지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부여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온천의 우선 이용 혜택을 받는 자를 처음에 온천발견신고인에서 최종적으로 온천발견신고인이며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자로 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한 입법취지는,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종전에 온천발견신고인에게 부여된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이 없어진 현재의 제도 내에서 명시된 규정도 없는데 온천발견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승계된다고 그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온천법」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건번호: 08-0041 | 회신일자: 2008-05-09)

[법령해석사례]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의 하나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5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함)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건번호: 08-0073 | 회신일자: 2008-05-09)

[해외동향] 美영화산업(상) - 불황을 모르는 할리우드

– 경기둔화 불구하고 성황 누리고 있어 –

– 지난해 극장 수입 96억 달러로 사상 최고 –

(이상우 로스앤젤레스 무역관(jeremylee@kotrala.com) | 보고일자: 2008.4.15)

□ 호황 속의 할리우드

○ 지난해 박스오피스 역대 최고 수치 기록

- 최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기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극장 수입만큼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가 최근 발표한 '2007년 극장 수입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영화관 총 수입은 96억 2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치였으며, 전 세계 극장에서 거둔 수입 또한 4.7% 늘어난 26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였던 것으로 집계됨.

<연도별 미국영화 흥행 수익>

(단위: 억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미국 내	91.7	92.2	88.3	91.4	96.3
증가율(%)	-1.2	0.5	-4.2	3.5	5.4
해외	109	157	143	163	171
총	201	249	231	255	267

자료원: MPAA

○ 성장의 주요 원인

- 극장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극장관람료 인상·인기 영화 속편들의 출현·디지털/3D화되는 영화관 시설들의 증가로 분석되고 있음.
- 극장 관람료의 평균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에는 전년의 6.55달러에서 5% 오른 6.88달러를 기록했음.
- 한편 극장 관객의 수는 전년과 비교해 0.3%의 차를 보이며, 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 할리우드의 호황은 시리즈 영화 속편들의 대박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흥행순위 1위였던 '스파이더맨 3'를 비롯해 '슈렉 3'(2위), '캐리비안의 해적 3'(4위), '해리포터와 불사조기사단'(5위), '본 얼터메이텀'(7위), '내셔널 트레저 2'(10위) 등 상위 10편 중 무려 6편이 속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시리즈물이 계속 제작되는 이유는 전작의 성공으로 이미 고정팬이 확보돼 있고, 따라서 제작비 대비 예상 흥행 위험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작년 상위 20편의 영화가 벌어들인 수입은 41억7000만 달러로 총 극장 수입의 43%에 달했음.

<연도별 미국영화 관객 수 및 관람료 변화>

	2003	2004	2005	2006	2007
관객 수(백만 명)	1.521	1.484	1.376	1.395	1.400
증가율(%)	-4.9	-2.4	-7.3	1.4	0.3
극장 관람료(달러)	6.03	6.21	6.41	6.55	6.88
증가율(%)	3.8	3.0	3.2	2.2	5.0

자료원 : MPAA

<2007년 미국 내 흥행 상위 20편>

순위	영화 제목	배급사	박스오피스 (백만 달러)	상영등급
1	Spider-Man 3	Sony	336.5	PG-13
2	Shrek the Third	Paramount	322.7	PG
3	Transformers	Paramount	319.2	PG-13
4	Pirates of the Caribbean: At World's End	Disney	309.4	PG-13
5	Harry Potter &The Order of the Phoenix	Warner Bros.	292.0	PG-13
6	I Am Legend	Warner Bros.	251.7	PG-13
7	The Bourne Ultimatum	Universal	227.5	PG-13
8	300	Warner Bros.	210.6	R
9	Ratatouille	Disney	206.4	G
10	National Treasure: Book of Secrets	Disney	205.7	PG
11	Alvin &The Chipmunks	Fox	204.1	PG
12	The Simpsons Movie	Fox	183.1	PG-13
13	Wild Hogs	Disney	168.3	PG-13
14	Knocked Up	Universal	148.8	R
15	Rush Hour 3	New Line	140.1	PG-13
16	Live Free or Die Hard	Fox	134.5	PG-13
17	Fantastic Four: Rise of the Silver Surfer	Fox	131.9	PG
18	American Gangster	Universal	130.1	R
19	Bee Movie	Paramount	126.2	PG
20	Enchanted	Disney	124.9	PG

자료원 : MPAA

- 할리우드의 '가족 영화' 중심적인 추세는 2007년에도 이어졌음.
- '전체관람가(PG, G)'와 '13세 이상 관람가(PG13)' 등급의 영화들이 전체 영화들의 85%나 차지했던 것도 흥행수입을 늘리는 데 큰 몫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할리우드는 현재 관객 수를 더 늘리기 위해 극장들을 디지털화 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
- 1만 4000개의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Regal Entertainment Group'과 'Cinemark Holdings', 그리고 'AMC Entertainment'는 상영관 디지털화를 위해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임.
- 미국에는 현재 약 4만 개의 상영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3~4년 동안 5000개 이상의 디지털 상영관이 미국 전역에 생겨나 2015년까지 총 상영관의 40%인 1만 5000개의 상영관이 디지털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올해도 성황 예상

- 사람들은 대체로 경기가 나빠지고 생활수준이 낮아질수록 큰 소비를 줄이는 대신, 영화와 같은 비교적 값이 싼 여가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둔화를 맞고 있는 현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올해에는 또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인기 영화 속편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정돼 있어, 작년 못지않은 흥행 기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됨.
- 19년 만에 돌아온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4편인 '크리스털 해골의 왕국'을 시작으로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가 5월에 개봉하며, '인크레더블 헐크'·'헬보이 2'·'다크 나이트' 등 흥행 기대가 높은 속편들이 연이어 개봉 대기 중에 있음.

※ 자료원: MPAA, PricewaterhouseCoopers, 자체 무역관 자료 등

(KOTRA, 무역투자정보포탈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등록일: 2008.04.22)

[해외동향] 美 영화산업(하) - 한국영화 진출현황

– 좀처럼 열고 들어가기 힘든 할리우드의 문 –

– 좋은 줄거리는 어디서나 각광받아 판권 판매가 가장 유망 –

(이상우 로스앤젤레스 무역관(jeremylee@kotrala.com) | 보고일자: 2008.4.15)

□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외국 영화들

○ 좀처럼 열리지 않는 할리우드의 문

- 지난 5년간 합작 영화를 제외한 외국 영화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개봉작 수를 기준으로 꾸준히 30% 가량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흥행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 미국에서 상영된 총 609편의 영화들 중 28.7%에 달하는 175편의 영화가 외국 영화였으나, 흥행 수입은 미국 내 전체 극장 수입의 2.2%에 그침.

<2006년 외국영화 시장규모>

	전체 개봉 영화	외국영화	비율(%)
개봉 편수	609	175	28.7
흥행수입 (백만 달러)	9,490	209	2.2

자료원 : KOFIC

○ 유럽영화 상영현황

- 미국 내 외국영화들은 유럽·동아시아·아프리카 지역들의 영화들로 구성되며, 유럽영화, 특히 언어적 유리함을 갖춘 영국영화가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럽영화는 2006년 한 해 동안 1억 4700만 달러의 흥행수입을 거두며, 외국영화 총 수입의 70%를 차지했으며, 유럽에서 제작된 영화는 지난 3년간 평균 60편대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 내 유럽 영화 국가별 개봉 현황>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기타	합작	합계
개봉 편수	9	19	8	5	14	67	122
흥행수입 (백만 달러)	2.1	51.6	0.96	5.2	8.86	77.8	147

자료원 : KOFIC

- 국적별 미국 내 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럽영화는 주로 유럽 대륙 내의 합작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데, 12개국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작품을 모두 합친 수보다 높은 수치임.
- 영국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포함해 영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 수입은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아시아영화 상영 현황

- 한국영화를 포함해 2006년 개봉된 37편의 아시아영화들이 미국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약 5500만 달러로 미국 내 전체 극장 수입의 1%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음.
- 국가별로는 인도가 19편의 영화로 가장 많은 수의 영화를 개봉했으나,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건 2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중국·홍콩 영화들이었고, 무협판타지물인 '무인 곽원갑'의 공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무인 곽원갑'은 1800개 이상의 극장에서 2460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아시아 영화로는 2006년 가장 큰 성적을 올렸음.
- 미국 내 아시아 무술영화의 흥행가치는 여전히 높음. 태국영화 무술영화도 태국영화가 지

난 4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두 배가 넘는 1190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이 영화 한 편으로 태국을 아시아 국가 중 흥행 3위에 올려놓았음.

<미국 내 아시아영화 국가별 성적>

	인도	한국	일본	중국·홍콩	태국	필리핀	중동	총계
개봉 편수	19	4	3	7	1	1	2	37
흥행수입 (백만 달러)	15.00	0.36	0.07	27.00	11.90	0.28	0.067	55.15
비율(%)	27.21	0.66	0.13	49.72	21.58	0.50	0.12	100

자료원 : KOFIC

○ 한국영화 상영현황

- 한국영화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외국 영화(Foreign Film, Foreign Language Film)로 구분돼 수입돼 오는 것과 미국 현지 스태프와 배우를 동원해 제작한 후 현지 배급사를 통해 배급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 원작의 리메이크 판권을 미국 영화사에 판매하는 것이 있음.
- 외국영화는 영어 자막 또는 더빙으로 미국 극장에 개봉되는데, 대부분 외국영화는 미국 내 외국영화 및 예술영화 전문극장 등 틈새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한국영화 중에서 이러한 통로를 거친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올드보이'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짙은 예술성으로 평단의 호평을 많이 받았음.
-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는 2004년 미국 내 29개관에서 개봉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보다 많은 개봉관에 배급돼 흥행이 기대됐으나 미국 내 극장 수입은 11억 원에 그쳤음.
- 현지에서 미국 스태프와 배우들을 동원해 제작하고 배급을 하는 것도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직접적인 방법임. 2007년 심형래 감독의 'D-War'가 유일한 사례임.
- 'D-War'는 한국에서 개봉된 이후 미국에서 2007년 2277개관에 개봉돼 총 10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음.
- 'D-War'의 관객은 대부분 미주 한인들이었고 미국인들에게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한국 영화로 미국에서 현지 제작 및 배급을 한 점은 신선한 시도이며, 현지시장 진출의 길을 어느 정도 다져놓은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국영화 원작의 리메이크 저작권을 미국 영화사에 판매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시장진출로 여겨져 있으며, 안전한 만큼 직접적인 배급보다는 수익성이 낮음.
- 리메이크 영화는 미국 현지 제작자들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 영화사 측은 미국에서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프로모션 차원에서 한국적 정서를 미국 할리우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 현재 미국에서 리메이크 시나리오 작업을 거치고 있는 영화는 '조폭 마누라'와 '엽기적인 그녀'가 있으며, 한국 영화 리메이크 대표 작품은 '시월애'를 원작으로 한 'The Lake House'로 키아누 리브스와 샌드라 불록이 주연하며 제작비로 400억 원이 소요됐고, 2006년 6월 미국 내 2645개관에 개봉해 총 5200만 달러 이상의 극장수입과 35억 달러 비디오 대여 수입을 기록했음.

<미국 내 개봉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성적 Top 5>

순위	영화 제목	흥행수입 (만 달러)	개봉 연도	스크린 수
1	디 워	1000.0	2007	2277
2	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봄	238.1	2004	74
3	괴물	220.2	2007	116
4	태극기 휘날리며	111.1	2004	34
5	춘향뎐	79.9	2000	16

자료원 : www.boxofficemojo.com

□ 시사점

○ 미국 할리우드 진출을 향해 계속 문 두드려야

-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은 2000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됐으며, 미국영화 업계에서도 한국영화계를 통한 아이디어 소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과 한국영화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시월애'의 리메이크작 'The Lake House'가 무난한 흥행성적을 기록했던 것과 같이 한국 시나리오의 진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홍콩영화 '무간도' 성공이 시사하는바 커

- 홍콩 영화 '무간도'의 리메이크작 'The Departed'는 1억 3000만 달러의 극장 수입과 4700만 달러의 비디오 대여 수입을 기록하며, 200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편집상·각색상을 수상하기도 했음.
- 미국 MPAA의 존 그릭만 의장은 "우리가 어디서 살든 좋은 이야기는 우리 가슴과 우리의 극장에 늘 자리를 잡게 돼 있다"고 시사했음.
- 이와 같이 한국도 탄탄한 스토리와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면, 좀 더 공격적인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고 보임.

※ 자료원 : KOFIC, boxofficemojo.com, IMDB, 무역관 자체 자료 등

(KOTRA, 무역투자정보포탈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등록일: 2008.04.22)

[해외동향] 오스트리아, 유로 2008 개최와 기대되는 경제효과

- 방문객 수 200만 명, 경제효과 최대 7억 2000만 유로 예상
- 국가 이미지 홍보 등 부수적 효과 기대

(김현준 빈 무역관(kim@kotra.at) | 보고일자: 2008.5.24)

□ 개요



○ 하계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스포츠 행사인 유럽 축구 대항전 'Euro 2008'의 개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공동 개최로 열릴 이 스포츠 행사는 6월 7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결승전 포함 총 31경기가 펼쳐지며, 결승전은 6월 29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Ernst-Happel-Stadion 경기장에서 치러짐.

○ 총 16개국이 4개조로 나뉘어 23일 동안 진행될 이 스포츠 행사 기간에 경기를 보기 위한 관람객과 기타 방문객들 수백만 명이 오스트리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 이외에도 국가 이미지 홍보 등 무형의 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음.

□ 준비 상황

○ Euro 2008 대회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빈·잘츠부르크·인스부르크·클라겐푸르트 등 4개 도시에서 개최되는데, 이곳 경기장들의 증·개축 및 신축을 위해 총 1억 40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입됐음.

〈오스트리아 Euro 2008 경기장별 현황〉

도 시	경기장명	수용관중 수	소요예산	비고
빈	Ernst-Happel-Stadion	50,000	18	개축
인스부르크	Tivoli-Stadion	31,600	31	증축
잘츠부르크	Stadion Salzburg	30,500	29.5	증축
클라겐푸르트	Wörthersee-Stadion	30,000	60	신규 건설

자료원: APA

○ 오스트리아의 스포츠 관련 대표적 연구 기관 중의 하나인 SpEA (SportsEconAustri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Euro 2008 기간 동안 최소 143만, 최대 19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ro 2008 기간 오스트리아를 방문 예상 외국인 관광객 수〉

(단위 : 천 명)

구분	최소	최대
경기장 밖 관람객	1,116	1,594
경기장 관람객 동반 일행	37	37
경기장 관람객	276	276
계	1,429	1,907

자료원 : SpEA

○ 현재까지 호텔 등 숙박업소의 예약 상황으로 미뤄보는 Euro 2008의 효과는 지역별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인스부르크 · 잘츠부르크 · 클라겐푸르트 등 전통적으로 6월이 여행·관광업계의 비수기였던 지역은 Euro 2008과 관련해 작년보다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이 스포츠 행사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통상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수의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6월이 호텔 업계의 성수기에 해당하는 컨벤션의 도시 빈은, 올해는 Euro 2008 개최와 맞물려 다수의 국제 학술회의 등 그 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됨으로써 4 · 5성급 고급 호텔의 경우 예년보다 오히려 예약률이 저조한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
- Euro 2008을 보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찾는 관광객은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비즈니스 고객'보다는 민박 · 캠프 · Youth House 등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알뜰 고객'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이들 '알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빈 시는 Prater에 위치한 빈 전시장 10번 홀을 개조해 대형 Camp를 건설했음. 'Fan-Camp'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장소는 최대 3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숙소로, 1박 최고 가격이 38유로로 젊은층 단체 스포츠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대표인 Michael Mutz씨에 따르면 현재 예약률은 2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스웨덴 · 스페인 · 독일 등 본선 진출국 이외에도 미국 · 일본 등에서 오는 관광객이 주 고객층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됨.

□ 경제 효과 및 전망

○ SpEA 전망에 따르면, Euro 2008 개최가 오스트리아 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최소 4억 7000만~7억30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Euro 2008 기간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 각 경기장 및 오스트리아의 여러 도시 등이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널리 소개됨으로써, 국가 이미지 홍보라는 막대한 '무형의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됨으로써 향후 오스트리아 관광산업 성장에 큰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임.

○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함께 다시 한번 유럽의 중심으로서의 도약을 준비 중인 오스트리아에, 이번 Euro 2008 스포츠 행사가 다시 한 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Euro 2008 개최가 오스트리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최소	최대
경기장 밖 관람객	194.16	337.43
경기장 관람객 동반 일행	39.33	54.48
경기장 관람객	328.97	460.95
차감: 기회비용	90.09	126.13
계	472.37	726.73

자료원: SpEA

※ 자료원: SpEA, Format 및 관련일자 인터뷰 자료 종합

(KOTRA, 무역투자정보포탈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등록일: 2008.05.24)

[해외동향] 컨벤션센터를 통한 국제회의 도시 인프라 극대화(ACV)

1. 오스트리아 컨벤션센터(ACV)

○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20여개가 넘는 국제연합기구 소재도시에 걸맞게 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시산업의 활발한 전개로 인하여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경제기여효과를 창출.

○ 특히 국제연합산하 기구들이 입주해 있는 UNO-city와 함께 자리 잡고 있어서 세계문제를 다루는 회의의 현장으로서 그 품격도 유지하고 있음.

2. 설립배경

○ 1971년에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와 비엔나 시의회가 설립한 기구인 Amtssitz-und Konferenzzentrum Wien, Aktiengesellschaft (IAKW-AG)라는 다국적 법인에 의해 설치됨.

3. 규모 및 현황

○ 오스트리아 최대의 컨퍼런스 센터 (CEO: Thomas Rupperti(2003~))

- 수용인원: 10,200명, 연면적: 9,500 ㎡
- 회의장의 수: 17개장 (최대 4320명 수용)
- 전시면적: 22,200㎡ (야외 포함)
- 개장 이래 활용실적: 2,712 이벤트/ 470만 명 (1987~2006)

4. 목표 및 가치

○ 유럽지역의 회의와 행사마케팅의 최적 장소

○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넓은 회의시설

○ 2005년 이래 비엔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만든 역할 담임

○ 국제연합기구들과의 일해 나가는데 있어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할 수 있음

○ 시장의 가변적인 요구에 대처 -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

○ 국제적인 다른 회의시설들과 유대를 통해 대규모 회의의 윤번제 개최

○ 각종 중소규모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연중 활용도 제고

○ 제한된 범위를 충분히 활용한 구조변경 등을 통해 늘어나는 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

5. 컨텍포인트

○ 주소: Austria Center Vienna IAKW - AG, Bruno-Kreisky-Platz 1 A-1220 Vienna

○ 연락: Tel: +43-1- 260 69-0 Fax: +43-1-260 69-303 E-Mail: office@acv.at

6. 시사점

○ 국제기구 밀집도시라는 최적의 여건을 국제회의 도시라는 기능성 인프라로 연계하므로써 도시브랜드를 극대화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외우수행정사례」, 유럽사무소 | 등록일: 2008.05.01)

[언론동향] (심층진단) ① 여행산업 기로에 서다

항공권 수수료율 인하→중소여행사 프리랜서 전환 속출

대형사들 실적 악화… "여행업 고성장시대 끝났나" 우려도

지난 4월 대한항공은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항공권 대매(위탁판매) 수수료율을 기존 9%에서 7%로 인하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부터 연이어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을 7%로 내렸다. 외국

국적 항공사 중에선 타이항공이 대한항공과 함께 수수료율을 낮췄고, 다른 외항사들도 이에 동참할 기세다.

지난해 말 국적 항공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 이후 여행업계에선 줄곧 이와 관련된 논란으로 뜨거웠다. 등록 여행사만 1만개가 넘는 업계가 중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 등으로 높아진 비용을 여행사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상장 여행사들이 환율영향 등으로 최근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해외여행 사업이 고속성장 단계에서 안정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지난 수년 간의 고성장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 인하를 계기로 터져 나온 여행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지난 겨울 성수기를 끝으로 사무실과 직원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익은 20% 이상 줄고,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찌꼬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최근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모 여행사의 여행 프리랜서(일명 모찌꼬미)로 입주한 경기도 분당의 김 모씨 말이다. 여행 프리랜서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객 모집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가리킨다. 그는 "요즘 주위 중소 여행업체들과 정보를 나누다보면 대부분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폐업을 하거나 업체 간 소규모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10인 이하의 소형 여행사들의 경우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자체 영업을 접고 여행 프리랜서로 전향하거나 직원 수를 줄이고 사무실을 합치는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항공권 대매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소형 업체들을 시작으로 서서히 구조재편의 소용돌이에 들어서고 있다.

소형 여행사들부터 모찌꼬미로 속속 전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4월 현재 총 여행업체 수는 1만816개로 조사됐다. 국외여행업체가 5904개, 국내여행업체가 4221개, 일반여행업이 691개다. 이중 국내외를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업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808개에서 100개 이상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 같은 감소가 집중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인바운드 업체들이 관광객 감소와 환율 여파 등으로 몇 년째 누적돼온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 여행) 업체 중에서도 신규 업체들이 경기 침체, 수수료 인하 등의 이유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 하거나 업체 간의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 인하를 계기로 영세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업계 재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다. 모 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안에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이) 5%에서 제로베이스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제로 커미션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이 전면 폐지되는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우리 보다 앞서 수수료를 없앤 미국의 경우, 지난 2000년 3만개가 넘었던 여행사의 수는 마지막 수수료 삭감 직후인 2005년에 2만1000개사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지난 95년 100달러로 수수

료 상한을 설정한 데에 이어 99년 수수료율을 5%로 내렸다가 2002년에는 아예 이를 폐지했다.

중소형 직판 여행사들도 영향권

문제는 한계업체라 할 수 있는 10인 이하의 영세한 소규모 회사만이 아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직판 여행사들도 수수료 폐지에 따른 타격을 피해가기 힘들다.

전문성이 없는 중소여행사와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소위 '딱지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이 9%에서 7%로 줄면서 관련 매출도 22% 가량 줄어들게 됐다. 연 매출 5억 원 정도의 회사로 치면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고스란히 사라져 직원 3~4명 정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항공권의 직접 판매를 위해 BSP(국제항공운송협회의 항공권 정산제도)에 가입한 여행사의 경우 BSP 담보액마저 최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여행 프리랜서는 매월 30~40만원의 관리비만 내면 소속사로부터 사무실을 비롯해 견적 의뢰와 항공 좌석, 카운터 등의 업무 지원을 받게 돼 부담이 덜한 편이다. 또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자동 면제될 뿐 아니라 BSP 담보액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확실한 모객 물량과 2000만~3000만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시켜주면 비업계 종사자들도 프리랜서로 입주가 가능한 터라, 진입 장벽 역시 높지 않은 편이다.

프리랜서 증가는 본격적인 업계재편의 신호탄

하나투어와 OK투어 등의 홀세일 업체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여행 프리랜서들을 관리해 왔다. 하나투어는 자회사인 남강여행사를 통해 여행 프리랜서를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OK투어의 경우 여행 컨설턴트를 운영 중이다.

모두투어도 현재 광화문 지점에서 여행 프리랜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투어(옛 호도투어)는 지난 4월부터 연방제 홀세일 오픈과 함께 여행 프리랜서인 FTC를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기존의 패키지 여행사들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여행 프리랜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소형사의 인력이 대거 대형사로 쏠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리랜서 형태의 움직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 중견 여행사들의 도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헤쳐모여'를 통한 본격적인 업계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심원섭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 인하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간판사와 여타 직판사에 각각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며 "간판사는 영업수익 감소분을 대리점에 전가해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지만, 직판사의 경우 영업수익 감소가 수익성 악화 혹은 패키지 판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상장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여행사가 재무구조와 수익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행업의 시장 참여자(경쟁자)수는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업계 구조재편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2008.05.20 07:50)

[언론동향] (심층진단) ② '글로벌 여행사'가 출현하려면

항공권 수수료 영업 한계…서비스 피 중심 수익모델 찾아야

업체 전문성 확보 시급…여행산업 선진화 위한 정부지원도 필요

항공사들이 항공권 대매 수수료율을 인하한 데에는 유가 상승 등으로 커진 비용 부담을 여행업체들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 2002년 항공권 대매 수수료를 아예 폐지한 미국의 경우, 저가 항공사의 성장에 따른 항공사의 재정적 손실과 부도 증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여행업계 전반의 재편을 가져온 것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항공권 대매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여행업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 탓이 크다.

이주병 현대차IB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에선 아무래도 면대면 방식의 영업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 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도 이런 여행업체들에 모객(고객 모집)을 의존해 왔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과 하드블록제(여행사가 항공사에 보증금을 주고 좌석을 미리 확보하는 제도) 등이 만들어진 데에는 이런 식의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깊은 유착 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여행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부채질한 요인이다.

현재 국내여행업체와 국외여행업체는 각각 자본금 5000만원과 1억원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외 영업이 가능한 일반여행업체로 등록하는 경우도 3억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서비스 피 중심의 글로벌 수익모델 찾아야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인력의 유입이 잦게 되고, 결국 상품 기획이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보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항공권 영업에 목을 매게 된 것. 이러다 보니 종종 '마이너스 피(Minus Fee)'를 감수하며 항공권을 판 뒤 현지 쇼핑과 옵션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의 출혈 경쟁을 감수하게 된다.

물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더 이상 항공권 대매 수수료에 목을 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비스 피(Service Fee)'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한 수익 모델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서비스 피는 예약요금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실제 제품(호텔 예약, 항공권 등)과 더불어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해 여행사가 구매자(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요금의 총계다. 소비자로 하여금 여행사가 창출하는 본연의 부가가치인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해 대가를 지불케 하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항공권 대매 수수료의 인하와 폐지를 경험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피가 일반화돼 있는 편이다. 특히 기업전문 여행사들은 항공권 대매 수수료 폐지 과정에서 발빠르게 '거래 피(Transaction Fee)'나 '관리 피(Management Fee)'가 포함되도록 기업고객과 재협상을 벌였고, 이를 통해 항공권 배포채널이 아닌 기업의 여행비용 관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트랜드에도 맞아

서비스 피는 단순히 수수료 수익의 손실을 상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행사들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수익원이기도 하다.

유럽의 경우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서비스 피 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지역 같이 서비스 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들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여행사의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 편이다. 스칸디나비아 여행사들은 지난 2005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익률(판매액의 10.7%)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행사 총 수익의 73%가 서비스 피에서 나왔고, 수수료 수입은 18% 정도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항공 수수료 삭감 및 항공권 판매의 감소는 패키지 상품과 크루즈 상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패키지여행의 판매비중이 항공권 판매비중을 넘어선 반면 항공권 판매는 여행사 판매의 주력요소에서 밀려났다.

최근 여행업계의 트랜드가 패키지에서 개별자유여행(FIT)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서비스 피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요소다. 소비자들의 여행상품에 대한 태도와 그 접근 방식 등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웹 광고업체인 버스트미디어(Burst Medi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는 모든 여행 예약의 30% 이상이 온라인 예약으로 이뤄졌다. 미국 조사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는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를 찾은 유럽 여행자들의 40%가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했으며, 27%만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구매를 했다고 밝혔다.

"개별업체 전문성 키워야" 의견도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비자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여행사의 경쟁력도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2년 전 협회 홈페이지에 모 업체가 서비스 피의 효과를 봤다며 이에 동참하자는 글을 올렸지만 호응이 많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개별 업체들의 입장에 따라 서비스 피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품 기획과 컨설팅 등의 여행업 본연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적은 것이 현재 이 제도의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란 얘기다.

그는 "일부에선 항공사가 먼저 앞장서서 (서비스 피 도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며 "어쨌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업계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기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세계적인 여행사인 JTB의 경우 인바운드(외국 관광객의 국내 여행) 매출이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 여행) 매출을 압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경우 이와 정반대의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 매출 규모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고질적인 여행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관광대국'을 내걸고 직접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 보다는, 국내 여행산업을 선진화시켜 JTB와 같은 여행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행업계와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기웅 기자, 2008.05.20 08:00)

[언론동향] [신동아] 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5][6]

조령터널 8개로 쪼개 내년 4월 착공 vs 터널 없이 한강 · 낙동강운하만 건설

● **대통령 직속 운하추진단 만들고 5월 사업제안서 마감**

● **MB계 과반 확보 실패…운하특별법 강행 포기**

● **경부운하 2012년, 호남 · 충청운하 2011년 완료**

● **경부 100% 민자, 호남 · 충청 사업방식 고민 중**

● **한강-낙동강 연결, 속리산 절반 잠기는 스카이라인案 배제**

● **운하 주변 문화재 100곳… '공사로 인한 원형 파괴 거의 없어'**

● **교량 철거 5, 개축 24, 보강 3… 총 32곳 손댄다**

● **민간사 수익성 비상…도시개발,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 적극 지원**

18대 총선의 최대 쟁점은 단연 '한반도대운하'였다. 야당의 일제 공격에 한나라당은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공약에서도 대운하 건설은 빠졌다. 공격이 심해지자 당 대표의 입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표현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는 총선용 발언일 뿐이었다.

---

5) http://shindonga.donga.com/ (신동아 5월호)

6) 그간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은『관광관련 정부정책』을 통해 언론매체에서 다룬 "한반도대운하" 관련기사와 운하개발 해외사례를 소개한 바 있음. 관심있는 분은 해당 호를 참고하기 바람.

- 관광협회중앙회, '한반도 대운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제95호)
- [블로그] 한반도대운하가 곧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사기 (제96호)
- [영산강 운하 프로젝트] 뱃길 복원·관광지 조성 등 35개 사업 추진 (제96호)
- [유럽 대운하 리포트] "문화관광벨트 생길 것"↔"매장문화재 훼손 우려" (제96호)
- [유럽 대운하 리포트] 관광자원화, 암스테르담~부다페스트 '리버 크루즈'관광 인기 (제96호)
- [유럽 대운하 리포트] "운하 관광산업 성공하려면 길목마다 새 명소 만들어야" (제96호)
- [주간한국] 커버 · 대운하의 모든 것 (2008.02.19, 2210호) (제97호)
- [주간한국] [커버·대운하의 모든 것] "3,100㎞ 물길 뚫어라" 국토 대수술 (제97호)
- [주간한국] [커버·대운하의 모든 것] 광주·나주는 항구도시 '상전벽해' (제97호)
- [주간한국] [커버·대운하의 모든 것] 경원운하 건설은 남북경협 돌파구 (제97호)
- [주간한국] [커버·대운하의 모든 것] MB측 핵심브레인들의 주장은… (제97호)
- [주간한국] [커버·대운하의 모든 것] 전문가가 본 외국운하 사례 '성공이냐 실패냐' (제97호)
- [주간동아] COVER STORY | 한반도 대운하 (2008.01.22, 620호) (제98호)
- [주간동아] [COVER STORY | 한반도 대운하] 경부운하 설계도면 지난해 12월 완성됐다 (제98호)
- [주간동아] [COVER STORY | 한반도 대운하] 물길 지나는 중부내륙 기대는 '넘실' 걱정은 '출렁' (제98호)
- [주간동아] [COVER STORY | 한반도 대운하] "청계천보다 쉬운 공사 국민 설득 후 착공" (제98호)
- [기고] '대운하'는 관광산업의 미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제100호)
- [신동아] 건교부, 한반도대운하 반대론 전면 수정 (제108호)
- [신동아] 한반도대운하 MB 정부·건설사 비밀 구상 (제108호)
- [해외동향] Main-Donau 운하건설과 지역경제 개발효과(1) (KOTRA) (제97호)
- [해외동향] Main-Donau 운하건설과 지역경제 개발효과(2) (KOTRA) (제97호)
- [해외동향] Main-Donau 운하건설과 지역경제 개발효과(3) (KOTRA) (제98호)
- [해외동향] Main-Donau 운하건설과 지역경제 개발효과(4) (KOTRA) (제98호)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인 2월 초 운하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일찌감치 총선 전 무대응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신동아' 3월호 134쪽 참조). 그들은 철저히 그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운하 사업을 준비해온 그룹도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운하 공약을 책임진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그곳이다. 연구회는 지난 총선 기간에도 정국을 지켜보며 운하 추진 일정을 조율하고 운하반대론을 극복할 논리를 찾느라 분주했다. 이 연구회는 말만 연구회이지, 실제로는 정부 기관 이상의 기능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한반도대운하 TF팀의 핵심 멤버는 모두 이 연구회 출신이었다. TF팀장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핵심 멤버들이 모두 이곳으로 옮겨 일하고 있다.

청와대 보고서의 골자

이 연구회에는 지금도 국토해양부는 물론,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민자 컨소시엄, 설계 컨설팅 회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찾아 운하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간다. MB의 운하 구상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데다, 전문가와 자료가 그곳에 가장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와도 인적 핫라인이 형성돼 있다.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운하 건설과 찬성론의 전진 기지이자 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 유출돼 '운하 밀실 추진' 파동을 일으킨 국토해양부의 한반도대운하 보고서도 이곳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3월 27일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이 내부 보고서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실무자가 민간 제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로,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현재 제1 민자 컨소시엄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미 지난달 설계 컨설팅 회사에 운하 기본설계 계획을 맡긴 상태다. 최초 사업제안서 작성과 기초 환경평가를 하는 데 180억원이 들어간다. 확정된 정책도 없는데 민자사가 이런 거액을 그냥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터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로선 민자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다음 제3자 공고를 내는 시점이 운하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시점이다. 그전에 어떤 방침을 세우고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도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물밑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에 사업제안서를 내라고 공식 문서를 발송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국책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려면 장관의 도장이 찍히고 대통령의 사인이 박힌 공식 문서가 발표돼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총선 이후 한반도대운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 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바로 운하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으로 운하에 대한 국민여론 검증을 대신할 생각이었다('신동아' 3월호 기사 참조).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다. 한나라당은 과반인 153석을 얻었지만 그중 운하에 동조하거나 적극 찬성할 범(汎)MB계가 107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경한 운하반대론자인 박근혜 계파가 33명에 달하고 그 밖의 소장파, 무계보 당선자도 운하 반대론자에 가깝다. 범MB계중에서 '반란'이 일어날 소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운하의 최고 신봉자이자 돌격대장 노릇을 하던 이재오 의원과 대선 시절 대선캠프 한반도대운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박승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총선 전 무대응, 총선 후 강행'이라는 운

하 추진 전략에 일대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만든 조령터널 입구 조감도. 배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수위차를 극복한다.

부총리급 운하추진기획단장?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연구회는 4월 11일 운하의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기자는 연구회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보고서에 포함된 네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산하에 가칭 '한반도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든다. ▲3월 27일 언론에 유출된 국토해양부의 장관 보고용 문서 내용이 '실무자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는 공식 해명과 달리 대부분 사실이고 청와대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운하특별법 제정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법 개정과 내륙주운법 제정을 통해 운하사업을 추진한다. ▲조령터널과 스카이라인 안(案) 중 스카이라인 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다.

지난 1월 무렵, 잠깐이지만 운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론보다 앞서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한반도대운하추진단을 두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운하 무대응 방침이 확정되자 인수위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추진단장으로 거론되던 인수위 대운하 TF 장석효 팀장은 대선 당시의 자기 자리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측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한반도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장은 운하에 대한 의사 결정기능을 가진 자리로, 연구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장이 장관급임을 고려하면 아마 차관급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장석효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하지만 부총리급이 될 것이란 설도 흘러나온다. 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3월 보고서에는 '경부 · 호남 · 충청운하는 사업비가 총 20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사업구상과 건설, 관리를 담당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와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별도 기구(건설청)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 개정 이전에는 임시 조직인 '한반도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과 임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시 조직인 기획단은 1단장 2팀 23명으로 운하사업과 관련한 기획 · 검토를, 국토부 운하지원팀은 1팀 7명 내외로 법령제정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을 전담할 조직이 없어 효율적인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자신들이 청와대와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사이에 끼어 어정쩡한 상태임을 실토했다. 즉, 민간단체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와 함께 언제까지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특별법 포기… 고민에 빠진 민자사

대운하연구회 측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힌 이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2012년, 호남(영산강)·충청(금강)운하는 2011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민자사가 이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경제성, 재무성 분석, 부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인수위 당시 한반도대운하 TF팀은 2009년 2월을 경부운하와 다른 운하의 착공 시기로 잡았지만 국토해양부 보고서는 이보다 두 달 늦은 2009년 4월로 두 달 연기했다.

이렇듯 착공시기가 두 달 연기된 이유는 민자사의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이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자사가 운하 건설에 따른 수익창출 방안을 찾기가 그만큼 수월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단 대운하연구회는 인수위 때 3~4월 안으로 제출키로 된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마감을 5월 말까지로 연기했다.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좋든 싫든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운하가 또 한 번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한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말에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면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SK건설 컨소시엄이나 제3, 제4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고서에서 '민간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물동량 등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미흡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제안서가 부실하게 제출되는 경우 반대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정부의 제안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 운영수입을 보장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측은 일단 경부운하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5월까지 들어오면 7월 중순까지 그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제3자 공고를 내고, 11월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또 한 번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9년 1월에는 실시 협약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6월부터 부대사업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실시계획 전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은 후 공사에 바로 착수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운하사업 진행 일정이다. 대운하연구회도 이 같은 일정을 그대로 확인했다.

국토해양부 보고서는 사업제안서 제출에서 실시설계까지만 3~4년씩 걸리는 사업추진 절차를 1년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제1안이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제정이고 제2안이 '내륙주운법' 제정, 현행 민투법의 개정이다. 그런데 대운하연구회 측은 "청와대 보고에서 운하특별법을 포기하는 대신 제2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거셀 것 같다"는 게 대운하연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한나라당 내 범MB계만으로 운하특별법을 강행 통과시키기가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대운하연구회 관계자는 "굳이 운하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관련법들을 하나씩 개정해나가면 1년 내 착공과 2012년 완공엔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운하특별법을 포기하면 민자사의 운영수입을 보장해줄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진다. 실제 인수위 시절에 건교부가 만든 보고서에는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민자사에 1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토해양부 보고서에는 그 항목이 완

전히 삭제됐다. 민자사로선 운하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큰 메리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7시간 40분

'신동아'가 최근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입수한 '경부운하 소개'라는 문건에 따르면 환경단체와 야당이 백두대간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조령터널 계획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남한강과 낙동강 상류를 잇는 이 터널은 당초 조령산에 24㎞의 터널을 뚫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번 문건에는 그 길이가 31㎞로 늘어났다. 이는 조령터널 앞뒤 인공수로 시작 부분인 충주 리프트와 문경 리프트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초래된 결과인데, 이 때문에 본 터널의 길이는 21.9㎞로 줄어들었지만 그 터널 앞뒤로 7개의 소형 터널이 새로 생겼다. 터널이 8개로 늘어난 셈. 하지만 각 리프트 사이의 인공수로(터널구간 포함) 전체 거리는 지난해 대선 때 계획했던 86.4㎞보다 33.4㎞나 줄어든 53㎞가 됐다.

대운하연구회 관계자는 "이는 민자사(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초조사에 따라 생긴 변화인데, 보다 친환경적인 운하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이 안도 지질조사와 지층조사 등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방향과 터널의 길이, 숫자, 인공수로의 길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안이 확정된다면 터널의 숫자와 길이가 늘어남으로써 공사기간도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조령터널의 대안으로 속리산의 절반을 물에 잠기게 하는 스카이라인 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공수로의 길이만 100.6㎞에 리프트 4개소가 들어가야 하고 그 안에 주운용수댐 2개소, 보와 갑문이 2개소 들어가 환경단체로부터 '최악의 운하'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방안이다. 대운하연구회 관계자는 "환경파괴 요소가 너무 많아 이 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단 연구회 차원에서 청와대 보고에선 이 안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건은 운하 저수로 밖 둔치와 제방 인근 등에 있는 지정문화재(저수로 밖 500m 이내)가 64개소, 매장문화재(저수로 밖 50m 이내)가 36개소라고 추정했다. 운하연구회는 우선 이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해 운하공사로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되는 곳에 한해서만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운하연구회 측은 "실제로 배가 다니는 운하 바깥이어서 운하공사로 원형이 훼손되는 문화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 대운하연구회는 서울과 부산 간의 선박 운항시간을 최종적으로 밝혔는데, 2500t급 바지선을 기준으로 27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대운하연구회 측은 문건에서 '최대 운항속력의 75%로 계산하고, 갑문 통과 시간을 실제 계산 시간보다 20~30% 늘려 잡은 결과라 이보다 더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외항선에 선적하기 전 평균 5.3일을 대기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로운송보다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운하연구회가 계산한 26시간(설계속도 24시간) 보다 1시간 40분 늘어난 수치. 홍수, 태풍, 갈수, 안개로 인한 선박운항 제한 일수는 연 15일뿐이었다.

총선 당시 불거져 논란을 일으킨 철거보수 교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운하연구회 문건에 따르면 운하 건설로 철거, 개축, 보강해야 할 교량(2500t급 바지선 기준)은 대선 당시 발표한 25개소에서 32개소로 7개소가 늘어났다. 문건은 철거대상 5개 교량(구 행주대교, 잠수교, 구 탄금대교, 구 고령교, 구포교)은 폐(廢)교량으로, 운하 건설과 관계없이 철거해야 하는 교량이며, 개축(24개소)하거나 보강(3개소)해야 할 교량도 실제 선박 운행 시뮬레이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부 운하 한 · 낙동강 분리안

현재 운하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대형 5개 건설사 컨소시엄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건설사 상위 6~10위 업체로 구성된 SK건설 컨소시엄 두 곳이다. 12~20위 업체로 구성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합병됐고, 여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프라임그룹 컨소시엄이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 컨소시엄은 경부운하가 목표가 아니라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운하, 즉 영산강 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호남운하는 총 사업비가 3조 6000억원밖에 들지 않는 데다 극심한 수질오염 때문에 지역 환경단체가 운하건설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어 다른 운하사업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

경부운하의 경우 조령터널안을 선택한 대부분의 컨소시엄과는 별도로 한강과 낙동강을 터널을 뚫어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각각의 강에 따로 운하를 만들자는 제3안의 안이 전문가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MB캠프에서 운하정책을 수립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한 운하 전문가는 "환경단체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부운하는 결국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물동량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도 증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강과 낙동강에만 따로 운하를 만들면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피하면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과 낙동강은 수로에 배가 잠길 수 있는 만큼의 수량만 채워주면 그 자체가 운하가 된다는 게 이 전문가 그룹의 설명이다. 거기에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 둔치를 뜯어내고 자연생태 운하를 만들면 환경단체의 반대도 극복하고 경제성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논리. 실제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인천-팔당 사이 한강운하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 경제성지수(비용편익비, B/C)가 2.68~2.78로 나왔으며 1989년 건교부가 실시한 한강주운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지수가 1.2로 나왔다. 경제성지수는 1이 넘으면 사업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그룹은 곧 운하전문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SK건설 컨소시엄과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강 · 낙동강운하 분리 건설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한강운하와 낙동강운하를 만드는 데는 2~3년이면 충분하다"며 "우선 양쪽 강에 바지선을 띄우고 시민들에게 운하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검증을 받은 후 이 두 운하를 잇자고 제안하면 여론의 향배는 경부운하를 완성하자는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운하연구회 관계자는 "해당 전문가 그룹의 주장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업제안서를 내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 그룹은 해외 운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캠프 내 운하추진 전문가들을 앞에 두고 직접 외국 사례 설명회를 연 적도 있다.

'운하 그거 되겠어?'

한편 대운하연구회는 '경부운하 설명' 문건에서 '한강 하구에서 서해로 나가는 지역은 조위 변화가 크고 하상이 불규칙해 하구댐 기능을 하는 용강 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갑문이 군사경계선 상에 위치해 북한의 협력이 없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남북협조가 가능한 시점까지는 행주대교와 서해를 잇는 경인운하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놓았다. 국토해양부도 3

월 보고서에서 '용강보와 파주터미널 등은 경부운하 사업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은 다음 '경인운하를 올해 말에 착공해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대선 당시 남북경제협력구역인 나들섬 계획과 연계해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점을 경부운하의 서해 쪽 출구로 사용하겠다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경인운하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경부운하는 서해로 나가는 출구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경인운하는 1996년 계획이 마련된 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찬반론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등 온갖 잡음으로 12년 이상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

대운하연구회 관계자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게 상부의 뜻이다. 운하가 운하 그 자체로 찬반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화, 신념화, 종교화해서 다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대운하연구회 문건과 국토해양부 보고서에는 운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대국민 홍보대책이 치밀하게 마련돼 있지만 정작 운하 실무진은 '위'의 눈치를 보느라 입도 벙긋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누구도 '운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자유롭게 꺼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그들은 운하 건설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까? 이미 여론은 '운하 그거 되겠어?'라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신동아」, 2008.05.01 통권 584호(p192~201))

[소식행사] 『2008 한국 의료관광 컨퍼런스』 개최

5월 30일 한양대에서, 해외 의료관광 전문가 초빙 의료관광산업 이슈 제기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진수)는 5월 30일(금) 10시 한양대학교 경영관 7층 SK홀에서 "한국의료관광컨퍼런스(Korea Medical Tourism Conference)"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동 세미나에서는 정부 관계자, 미국의료관광협회(Medical Tourism Association), 해외보험사 및 에이전시 관계자 등이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문제, 해외보험사 및 에이전시 소개, 여행자보험을 통한 외국인환자 진료편의 제공, 의료관광 마케팅, 해외환자 및 동반자에 대한 비자제도 등 의료관광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호 해외마케팅지원팀장과 한국관광공사 정진수 전략상품개발팀장은 "의료관광 분야는 현재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홍보를 통해 이제는 해외 의료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참가하는 의료관광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동 행사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지자체 및 관련단체 종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 참가 등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문의: 전략상품개발팀장 정진수(☎02-729-9442/9441))